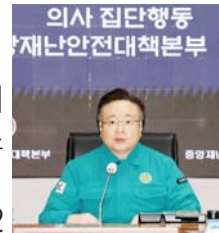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85.84	↑ 코스닥	894.48
	(+19.00)		(+14.02)
↑ 금리 (연이자율)	3.348	↑ 환율 (원/달러)	1333.70
	(+0.040)		(+3.20)

중증·응급질환에
예산 5조
집중 투입
02



연금 고갈만 늦춘 개혁안, 내달 결정... 반쪽짜리 비판도

연금특위, 두가지 방안 마련
내달 시민 검토 후 최종도출
구조개혁 없이 부담만 가중
근본적 재원 조달 방안 필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두 개의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면서 최종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시민대표단 검토를 거쳐 1개 방안을 선정해 오는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에만 집중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출했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연금개혁 없이 유지될 시 2055년 내 기금 고갈 전망이 나오는 만큼, 두 방안 모두 재정안정에 주안을 뒀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구조적인 개혁 없이 수치를만 조정하는 방안으로 마련되면서, 연금개혁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령화 및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 기금 고갈을 늦출 뿐이라는 것.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2년, '2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3년으로 예측된다. 각각 고갈 시기를 기존보다 7년과 8년 늦추는 데에 그친다.

또한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93년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출생률 저위 시나



장바구니 물가 점검하는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스1

리오(1.02명) 가정 시 112.2%, 중위 시나리오(1.21명) 가정 시 92.8%에 달한다.

반면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생률은 그보다 크게 낮은 0.6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시나리오가 출생률

의 조기 반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출생률 반등이 늦어질수록 재정 부담은 전망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개혁 및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분석했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할 경우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이외에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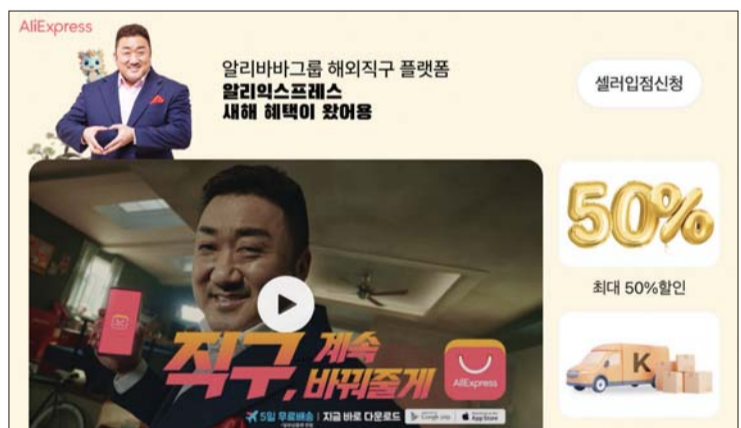
식품업계 줄줄이 알리行... 품질 불안은 여전

수수료 무료로 입점 가속화
정보유출·가품논란 등 우려도
소비자 불만 1월에만 150여건

최근 CJ제일제당이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입점한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가 줄줄이 알리 입점 행보를 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7일부터 알리 내 'K-베뉴(K-venue)'에서 즉석밥 햇반부터 비비고 민두와 김치, 스펀, 탕류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입점일인 7일부터 10일까지는 주요 상품을 파격가에 판매했으며 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일부 제품은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 1위 식품기업 CJ제일제당의 알리 입점은 또 다른 식품기업의 입점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원F&B가 이달 내에 입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해 10월 론칭한 케이베뉴에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알려진 데 이어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을 4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참치캔, 어묵, 식용유 등을 판매하는 사조대림도 이달 내에 브랜드관을 오픈할 예정이고, 대상과 풀무원, 농심 등 다른 업체들도 입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브랜드관인 K-베뉴를 론칭한 이후에도 입점·판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이어오며 상품 구성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사용자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인 데다, 수수료 부담도 없어 입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알리가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으로 카테고리를 넓히는 이유로는 식품이 구매 주기가 짧아 충성고객을 확보하기에 좋고, 잦은 방문을 유도한다는 점이 꼽힌다.

식품제조기업 입장에서 알리 입점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알리는 소비자 접점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거래처라는 것이다.

다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신뢰도가 낮은 중국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과 가품논란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급증했다. 전년도의 5배 수준이다. 올해는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돼 피해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고, 직접 유통을 하기 때문에 품질 문제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0일(수)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고금리 속에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수축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 전략을 모색합니다.

- 행사명 : 2024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 3월 20일(수)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미국무장관에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미래세대 위해 긴밀 협력”
▲ ‘건설업체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 기소 /사진 뉴스1

▲ 새로운미래, 비례 1번 양소영·2번 전종목... 최종 13명 후보 순번 공개
▲ 대통령실 “이종섭, 소환 안 했는데 귀국해 마냥 대기하는 건 부적절”



▲ 김진표 의장, 英·獨·네덜란드 공식 방문... 반도체 등 협력 확대 추진 /사진 뉴스1
▲ 한동훈 “민주당에 표 주면 이재명 위해 쓰일 것... 범죄자 연대 막아야”

“농축산물 자금 1500억 즉각 투입 장바구니 물가잡기 총력 다할 것”

尹, 민생경제점검 회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과 등 농산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둘러본 뒤 이들 상품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업계·소비자단체·상인단체 대표 등과 만나 민생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물가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의 하향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우리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5%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농산물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영향이 큰 생활 물가 상승률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리



민생경제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냉해 입은 사과·배 더 파격 지원 해외 수입과일 물량 무제한 풀고 정부, 국민 체감성과 나오게 해야”

기 위해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딸기·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물 등으로 확대하고,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 5종을 직접 수입해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과값과 관련해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가 줄어 소매가격도 크게 올랐다”며 “납품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 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모르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고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증·응급질환에 예산 5조 집중투입

정부, 병원 빅5 교수들과 대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을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내 주요 대형병원(빅5) 교수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소아청소년과·분만 등에 3조 투입 심뇌혈관 네트워크 등에 2조 지원

집단사직 결의 교수들과 대화 시작 교수에 “환자 곁 떠나지 말라” 당부 오늘 주요 5개 대학병원과 간담회

◆기피과에 5조원 집중 투입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10조원 가운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분야별 배분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할 방침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응급질환에 예산 5조 집중투입

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지원한다. 박민수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가급적 올해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수가 구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부, 대화 시도…“교수들, 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결의한 교수들과의 대화도 시작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교수들에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주요 5개 대형병원(빅5)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에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현황 등을 파악했다. 오는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하반기, 배터리 업황개선… 수출 청신호”

안덕근 산업장관, 수출 지원단 간담회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8월부터 양산 업황회복 대비 민관함께 총력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며 “올해 상저하고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열린 ‘수출현장 지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부사장,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 박종현 성우 대표, 김호일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정의영 코트라 본부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수출 보릿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열린 이차전지 수출현장 점검회의에 앞서 자동차 파워트레인 배터리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쬐여 있다”면서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업황 회복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원팀으로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우리 수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차전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2027년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엔진으로서 이차전지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4대 은행 점포 5년새 700곳 줄었다

금융권, 올해만 18곳 통폐합 고령층 등 접근성 어려워져

컴퓨터, 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보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영업점 수를 줄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 방식 변화와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지만 고령층, 도서·산간 거주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이 영업점(지점+출장소)을 통폐합한 곳은 18곳으로 집계됐다.

은행이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이유는 휴대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금

융당국이 지난해 4월 은행점포 내실화 방안을 통해 통폐합시 경영공시와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통폐합절차를 어렵게 변경했지만, 효력을 잃었던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대부분이 휴대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에서도 영업점보다는 모바일 앱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영업점을 통폐합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대은행의 영업점수는 지난해 말 기준 2818개로 2019년 말(3525개)과 비교해 20% 감소했다. 5년간 국민은행의 영업점은 254개, 신한은행은 165개, 우리은행은 163개, 하나은행은 127개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글로벌 기관·기업 관계자 한자리... 'K-스타트업' 이목집중

리포 디캠프 '모크토크' 현장

싱가포르 현지서 투자행사 개최
일본 등 다양한 국가 관계자 참여
"글로벌 자금, 한국으로 끌어들이 것"

싱가포르 내 자산 규모 2위 은행인 OCBC와 현지 벤처캐피탈(VC)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작한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벤처투자(KVIC), 우리자산운용 등이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를 통해 현지 VC에 출자하고 이들은 그 자금을 활용해 한국 스타트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투자규모는 1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싱가포르로 선(先)지원을 통해 국내로의 투자 물꼬를 트고, 그들의 넘쳐나는 자금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희석 OCBC 산하 VC '라이온 엑스벤처스' 한국사무소 대표는 "싱가포르는 세금과 규제가 낮고 안전한 시장으로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 자금이 빠르게 모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이 뒤쳐진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의 교류와 투자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디캠프, 싱가포르 진출 교두보

지난 14일 저녁 19세기 수도원으로 쓰이던 싱가포르의 고풍스러운 건물 '월드웰 하우스'는 국내외 금융사와 V



디캠프가 지난 14일 싱가포르 월드웰 하우스에서 올해 두 번째 '모크토크(MokTalk)'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선 한국 스타트업 17곳이 차례로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C 관계자 등 10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디캠프가 싱가포르에서 올해 두 번째 개최한 '모크토크(MokTalk)' 자리였다.

이번 모크토크에는 국내는 물론 싱가포르와 일본, 스위스 등 다양한 금융기관,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한국 성장금융, KVIC, 우리자산운용 등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글로벌 특화 펀드를 조성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투자금 유치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디캠프는 1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50억원을 싱가포르 VC로 출자하면 승수효과로 100억원의 투자가 국내 스타트업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VIC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아시아를 포함, 글로벌 VC에 총 1억1100만 달러(약1481억원)을 선출자 후 최소 이 금액 이상을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

받기 위해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 안요청서(RFP)를 진행중이다.

이들이 싱가포르에 주목한 이유는 이곳이 아시아의 금융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정치 상황에 중국과 홍콩을 떠난 자금이 싱가포르로 몰려든 원인이 가장 컸다.

싱가포르경제개발청(EDB)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싱가포르 내 고정 자산투자는 225억 싱가포르달러(SGD)로 전년(118억 SGD)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투자액 대부분은 미국(51%), 유럽(21%), 중국(9%)에서 들어왔고, 자국 투자자는 9%에 그친다. 일본의 자금도 싱가포르로 몰리고 있다. 니혼게이지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 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2019년 3조3133억엔(약 29조6270억원)에서 2023년 10조8543억엔(약97조원)으로 3.3배 늘었다.



◆ 한국 스타트업 주목

이날 모크토크 현장에선 한국 스타트업 17곳이 차례로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싱가포르에 현지 사무소를 이미 열었거나, 싱가포르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다. 싱가포르 은행인 OCBC와 현지 벤처캐피탈(VC)들 역시 투자 가치가 있는 한국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싱가포르 VC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거래소 윤성원 싱가포르지점 차장은 "싱가포르는 로컬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공개(IPO)도 적고 주식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며 "반면 한국 주식시장은 IPO가 많고 엑시트도 원활한 편이기 때문에 현지 VC들은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고 투자 니즈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는 오픈이노

베이션 정책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헬스케어 등 주요 기업들의 유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디캠프 김시완 싱가포르 센터장은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 등에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AI와 반도체 등의 산업군은 약한 편"이라며 "이 때문에 이 분야에 유망한 한국 기업들을 싱가포르로 유치하려는 니즈가 높다"고 설명했다.

디캠프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의 자금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한국이 싱가포르 VC들에 먼저 출자하면 승수효과로 그 이상의 금액이 싱가포르로부터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한국 유망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에 넘쳐나는 글로벌 자금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금감원, ELS 피해사례 도출 '쟁걸음'

H지수 판매사별 대표사례 선정 "시간단축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차등배상 기준안이 나오면 뭐 합니까. 대표 사례는 언제 나오나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분 있나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와 관련한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이 나온 지 일주일여가 지난 가운데, 투자자들은 배상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판매사와 관련 투자자 사이의 자율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대표 사례를 도출하는데 쟁걸음을 떼는 중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의 투자 손실은 6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배상비율은 23~50%로 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판매 회사별로 대표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뽑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대표 사례를 선정하고 나면 개별 사례를 대표 사례와 비교해 배상비율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시스

분쟁조정 대표 사례가 공개되기까지는 통상 2~3개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사와 민원인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부터 법률 검토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율배상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고, 모호해 투자자들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 사례를 기다리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옵티머스 사태와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대표 사례 선정 방식은 앞선 사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에는 회사별로 1~3개의 대표 사례를 선정해 선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 기준안은 2019년 불완전판매 문제가 된 DLF·라임 사모펀드 사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로, 당시 가

산·차감 요인 등을 고려해 20~80% 배상 비율이 정해졌던 바 있다.

다만 홍콩H지수 ELS는 앞선 사례들과 다르게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0~100%까지 세분화했기 때문에 100% 배상 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40만 계좌에 달하는 홍콩 ELS 계좌 규모에 자신의 사례를 대표 사례와 연관 지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홍콩H지수 ELS 계좌를 보유한 한 투자자는 "은행과 당국이 대표 사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은행에 유리한 대표 사례만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2~3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분쟁조정 대표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 관계자는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 선정 및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분조위에 대표 사례를 회부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 분조위는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금융사·투자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이다. 대표 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해당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완전 적립식 '신연금제도' 도입 고려해야"

>> 1면 '연금 고갈만 늦춘...'서 계속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 조정 만으로는 기금 소진 시점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연금제도 도입, 간접세를 통한 재정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

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 적립식의 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향후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알리, 국내진출 가속... 연내 물류센터 세운다

>> 1면 '식품업계 줄줄이...'서 계속

한 업계 관계자는 "K-메뉴는 알리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들 중국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카테고리"라며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혹은 비슷한 가격으로 동일한 제품을 국내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입점 업체가 직접 상품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식품 품질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알리는 국내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도 알렸다. 업계에 따르면 알리는 올해 약 2억달러(2632억원)를 투자해 국내에 18만여㎡(5만4450평)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축구장 25개를 합친 크기로, 쿠팡의 최대 규모 물류센터인 대구 풀필먼트센터(33만㎡)보다 작지만 컸다. 경기 평택 물류센터(20만㎡)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겁악재에 흔들리는 '수도권 민심'... 與, 한동훈 역할론 '고민'

국민의 선택 4·10 총선

‘회갈 테러 사건’ 언급 등 악재 겹쳐 중도 확장에 정책공약·인물 필요 대통령실과 각세워야 승산 의견도

거대 양당의 공천이 시작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수도권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 공천 마무리 단계에서 민주당보다 잡음이 덜 난 것으로 평가받던 국민의힘이 도태우·장예찬씨의 ‘막말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 민사회수석의 언론을 향한 ‘회갈 테러 사건’ 언급 등 악재가 겹친 것이다.

국민의힘이 원내1당이 되려면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을 이끄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들불처럼 퍼져가는 정권심판론을 어떻게 꺼뜨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 경보음 커졌다

여론조사 업체 갤럽과 리얼미터가 발표한 수도권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하락세가 확인됐다. 먼저, 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2주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4.7%)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다만,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32%로 역시 오차범위 내로 경합했는데, 지난 1주치의 같은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24%를 기록해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2주차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4.2%)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7.9%, 민주당은 40.8%로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접전이였다. 2주차 조사에서 서울은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39%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 1주치의 같은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8.6%, 민주당이 45.4%를 기록했는데 수치상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사에 사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은 20대 대선, 종로구 보궐선거, 제7회 지방선거에서 각각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며 좋은 흐름을 탔으나, 지난해 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 현상이 총선을 한달 앞두고 포착돼 여당 지도부로

서는 정권심판론 악화 전략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원톱 부담' 덜어줄 실력 있는 인재 필요

국민의힘의 서울에서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18일 “도태우 씨의 막말 논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사람들은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주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선 거도 뛰어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고려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를 영입해 통합 선대위를 꾸린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위에도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 교수는 “한 위원장이 ‘동료 시민’을 언급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이후로 운동권 청산 등 진영 대결 구도를 만드려고 하다보니, 반사이득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약간 헛바퀴가 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중도 확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소구력을 갖는 정책 공약 내지는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으로 충분, 용산궐 악재에 각세워야” 의견도

다만, 다른 전문가들은 현재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운 선대위로 총선을 치르되, 대통령실이 국정 전면에 나서서 상황을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의 하락세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출국에 대해 일반인들은 공정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전 장관 문제로 윤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된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면 정권심판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아직 여론조사에 안 잡혀 있는데, 황상무 수석 견도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정권심판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대위원장장을 추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정권심판론이 잦아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이야기하면서 정권심판론은 많이 잦아 들은 바 있다”며 “선거 구도를 바꿔야 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과 황상무 수석 견에서 한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미래세대 위한 연대·협력의 장 되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자유·평화가 창·혁신 꽃 피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18일 “국가와 정부에 주

어진 궁극적인 역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수

호자인 여러분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서울은 불과 70여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민주주의를 통해 일군

자유와 평화는 창·혁신을 꽃피웠고, 오늘날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길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재난의 시대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유월절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반드시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성체(聖體)와 보혈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보호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재난과 위기 앞에서 당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 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십시오.

세계 175개국 7500개 교회에서 370만 성도가 거룩히 지키는

새 언약 유월절 대성회에 초대합니다.



유월절 알아보기



유월절(逾越節, Passover)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 담긴 하나님의 절기다. (출애굽기 12장)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 전날 저녁,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며 떡은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는 인류 구원을 위해 흘리는 자신의 '피'로 지칭하고 이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영생)을 약속했다.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watv.org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별도 달도 따줄게”

통명스럽던 대화가
말랑말랑한 농담이 되고

불편한 자세에도
한 없이 고개를 드는

농촌의 밤 하늘엔
마법이 있으니

감성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지금,

가자, 고향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3가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상당의 혜택!



NH고향사랑기부예·적금
고향사랑기부 고객에게
우대금리 0.5%p 제공!



zgm.고향으로카드
내가 픽한 고향에서
최대 1.7% NH포인트 혜택!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적금가입대상: 개인(직립식)
 ※ 적금가입금액: 월 1만원 이상~50만원 이내 ※ 적금가입기간: 12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적금금리: 최대 연 4.40%(기본금리: 3.40%, 고향사랑특별금리(가입 고객 모두 적용): 0.1%p, 우대금리: 최대 0.9%p) ※ 적금금리 우대조건: 「고향사랑기부금, 건당 5만원 이상 납부 시: 0.5%p, 만 65세 이상 가입자: 0.1%p, MZ고객(만 19~34세): 0.3%p, NH채움카드로 전국 농협 판매장 이용 또는 zgm.고향으로카드 이용 시: 0.1%p ※ 예금금리: 최대 연 3.90%(기본금리: 3.10%, 고향사랑특별금리(가입 고객 모두 적용): 0.1%p, 우대금리: 최대 개인 0.7%p, 법인 0.2%p)
 ※ 예금가입대상: 개인(거치식) ※ 예금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 예금가입기간: 12개월 ※ 예금금리 우대조건: 「고향사랑기부금, 건당 5만원 이상 납부 시: 0.5%p, 만 65세 이상 가입자: 0.1%p, MZ고객(만 19~34세): 0.1%p, NH채움카드로 전국 농협 판매장 이용 또는 zgm.고향으로카드 이용 시: 0.1%p ※ 기본금리 및 특별금리: 2024.02.16 기준(세전, 연이)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가입일의 고시금리에 따릅니다.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만기(후) 또는 중도해지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제한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 연회비: zgm.고향으로카드-국내전용 1만 2천원, 국내·외겸용 MASTER 1만 2천원 ※ 고향사랑 기본 서비스: 국내/해외 이용가맹점 0.7% NH포인트 기본적립(전월실적 조건 및 적립한도는 없습니다. 해외이용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서비스수수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청구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외이용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토·일요일) 국내 이용가맹점 0.3% NH포인트 추가 적립(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시 제공되며 적립한도는 없습니다. 카드 사용 등록 일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는 전월 실적 미달 시에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고향사랑 우대 서비스(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중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기부)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주말(토·일요일) 기부지역 광역시·도 가맹점 및 전국 농협판매장/농협운영주유소 0.7% NH포인트 추가적립(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시 제공되며 월 통합 적립한도 1만 포인트입니다.) ※ 할인 제한사항 등 세부내용은 상품 안내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월실적에 따라 제공 한도내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부정적인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 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일시를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 (2개월)»,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적용-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환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천취소 후보, 거취 향방에 '주목'

정우택·장예찬 '무소속 출마' 강행... 정봉주 "당 결정 수용"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출마자에 "불관용 원칙 고수할 것" 뜻 밝혀

정 전 의원 "20년 만의 재도전 멈춰 부족했던 소양에 대해 사죄 드려"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막말' 등 여러 사유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이들은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도태우 변호사,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있다. 공천이 취소된 경우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일명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의 무소속 후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즉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경선에서 패한 이들은 탈당 후 같은 지역구 출마가 어렵다는 의미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막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된 정봉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토관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이인제 방지법'은 '경선후보'로서 당에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 즉 패배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뒤의 경우는 상정하지 않은 셈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공천이 취소된 이들은 모두 당내 경선을 거쳤다. 이 때문에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일단 지난 14일 '돈 봉투 수수 의혹'

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북 청주상당에서 정 부의장의 공천을 취소하고, 청주청원 경선에서 패배한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공천한 바 있다. 대구 중·남구 경선을 뚫고 후보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수영구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가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부족하고 철없는 20대 시절의 말실수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는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이 분명하다. 과거와 같지 않다. 재입당이나 복당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무소속 출

마 후 재입당과 관련해 "무소속 출마는 본인 선택이지만,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설령 당선된 다음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것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공천 취소 후보자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당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서울 강북을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지만, '복발 경품'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에서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경선 후보로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의원과 '알릴레오'로 알려진 조수진 변호사를 내세웠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치인 정봉주가 20년 만의 열정적인 재도전을 멈추려 한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강북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도 부족했던 제 소양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여러 차례 닦는 등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oul.co.kr

이재명, 마포 찾아 '정청래·이지은' 지원

위증교사 혐의재판 출석 전 유세 지지 양문석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실 것" "자신들 과거 발언부터 반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 출마자인 이지은 서울 마포갑 후보, 정청래 마포을 후보와 함께 경의선숲길을 찾아 "선거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심판 그 자체"라며 "4월10일 심판의 날에 마포구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시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마포갑 선거구에 속한 경의선숲길을 찾아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났다. 주말 사이 경기남부를 순회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 띄우기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마포구 일정 하나만 소화했다. 이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오후에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늘 사실 저는 오후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한다"며 "1분1초가 천금 같고 여삼추인데, 시간을 뺏겨서 재판 받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독재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의지도 많이 생긴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앞부분을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식사 대접',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정적을 탄압하고 시간과 돈을 뺏고 고통을 주는, 정말 무도한 폭력 정권에 대해서 국민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적인 평등한 나라, 법앞에 공평하게 취급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을 방문해 마포갑 이지은 후보(오른쪽), 마포을 정청래 후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세번 연속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 모욕 논란을 받고 있는 양 후보에 대해 "발언이 지나쳤다. 사과를 해야한다. 과거에도 사과했던 것으로 알고 지금도 또 사과하고 있다"라며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되시는 광상언 민주당 종로구 후보와 통화를 했다. 광 후보가 (양 후보가) 잘못된 것은 맞다. 그러나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 조롱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노 전 대통령을 위하는 조직이 됐나, 이상하지 않나"라고 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풍자연극 '환생경제'를 언급하면서 "환생경제에서 언급한 그들이 한 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환생경제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풍자하는 의도로 기획됐지만, 실제 공연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이 난무하는 등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지지자들이 "돌빵(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민주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연합을 찍어야 한다는 단어)을 연호하자 이 대표는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의선숲길에서 지지자들과 쓰레기를 쥔던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는 이 대표 측과 동선이 겹쳐 이 대표에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지지자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듣고 결국 돌아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도 '이종섭·황상무' 문제제기 나서

'수도권 위기관' 재점화에 대응

이종섭 주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회갈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도 이를 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는 해당 이슈가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 황상무 수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장관의 즉각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경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뿐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들도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MBC라디오에서 "(이 전 장관은) 본인이 들어와서 조사 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잘못이 없었다고 해도, 당연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황상무 수석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인 대표로 결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용산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여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 위기관'이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벌여졌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출국과 황상무 수석의 '회갈 발언'이 악재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당은 국민들의 민심을 최선에서 느끼고 있는 조직"이라고 밝혀, 해당 이슈가 선거 판세에 악재임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한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도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종섭 호주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자진사퇴하라"며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다. 대통령실 수석이 예외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마 이번주 안으로 이종섭 전 장관 건이나 황상무 수석 건은 정리가 될 것"이라며 "평소라면 달랐겠지만 대통령실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천이 끝나면서 바람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잘 해야 하니 장예찬·도태우 예비후보를 물러나게 한 것"이라며 "그만큼 비중이 큰 것이 이 전 장관 건이다. 군 사기와도 관련이 있고, 젊은 층의 인식도 중요해서다. 황 수석은 본인이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보이는 보험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은
삼성화재가 빠르게 달려가는 시간

보이는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탄탄한 출동 네트워크로 고객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KCSI 26년 연속(1998~2023)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자동차보험부문 1위
KMAC 선정

일상을 지키다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16906호(2024.02.26~2025.02.25)

기업대출 늘린 은행, 경기부진 지속에 건전성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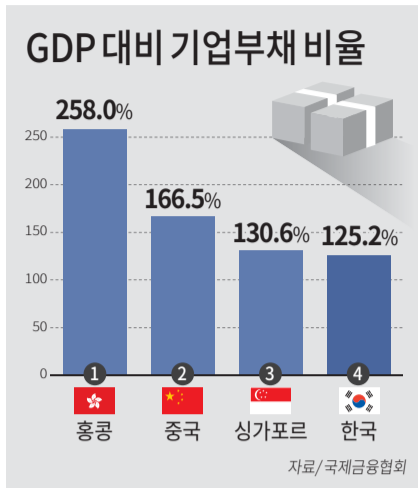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42%p ↑
완전 자본잠식 예상 기업 11.7%
부동산 PF 등 중심 연체율 상승

은행 건전성 악화 등 금융불안에
대출 확대보다 부실 방어가 관건

#. 시작은 기업의 대출규모 확대였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달려 빛까지 끌고와 투자를 감행했다. 수출 성장은 더디고, 글로벌 유동성은 고성장하는 미국에 물리는 시기였다. 아슬아슬하게 쌓인 탑은 신용국의 자본유출이 본격화되자 하나 둘씩 무너졌다. 굴지의 대기업은 파산했고, 한국의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탈하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달러매도에 개입한 정부는 외환보유고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1998년 외환위기의 서막이다.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더디자 추가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기업들의 연체율도 동반상승하고 있어 금융기관 부실 등 금융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5.2%로 1년전(121.0%)과 비교해 4.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258%)과 중국(166.5%), 싱가포르(130.6%)에 이어 4위다.

증가폭은 러시아(8.4%p·72.9→81.3%), 사우디아라비아(8.2%p·55.6→63.8%), 중국(7.7%p·155.8→166.5%), 인도(7.0%p·53.7→60.7%)에 이어 5위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 가계대출 보다 심각
문제는 늘어나는 기업대출 만큼 부실률도 상승하고 있는 것.

지난해 금융업 제외 전체 외부감사 기업 3만6425곳을 조사한 결과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4255사(11.7%) 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부실기업 3854곳에 비해 399곳(10.3%) 늘어난 수준이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쌓이면서 투자했던 금액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으로, 경기회복이 더디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1년전(0.27%)과 비교해 0.14%p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같은 기간 0.24%에서 0.35%로 0.09%p 상승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NPL)도 늘었다. KB국민은행은 기업대출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말 0.26%에서 지난해 말 0.42%로 0.16%p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같은기간 0.24%에서 0.29%로 올랐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은행 실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는 데다 소비부진이 심화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8일 "기업대출의 경우 금리상승기 이전에 규모가 늘어난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연체율 상승세를 제약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면 소비부진이 지속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억제규제에 따라 올해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며 반사효과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연초부터 회사채 시장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늘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올해 실적은 대출 성장보다 연체율 등 부실을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운전 훈수자격 시험장 새 브랜드 캠페인 진행

삼성화재가 신규 브랜드 캠페인을 공개한다.

◆프로모션 '운전 훈수자격시험장' 오픈

삼성화재는 2024년 출시한 신규 광고 '보이는 보험'과 연계해 자동차보험을 소재로 한 '삼성화재 운전 훈수자격시험장'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 보조석에 앉으면 운전자에게 훈수를 두고 싶어지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해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컨셉으로 진행한다. 응시원서를 접수해 문제를 풀면 결과에 따라 다섯 가지 레벨로 나누어진 자격증을 부여 받는다.

메인 콘텐츠인 '운전 훈수자격시험'은 총 8문제로 구성했다.

교보생명

국내 보험업계 최초 카톡 고객지원 서비스

교보생명이 모바일 메신저 기반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카톡'으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 '교보톡톡'

교보생명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 고객지원시스템인 '교보톡톡'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교보톡톡은 기존 고객지원시스템과 카카오톡을 연결해 고객과 컨설턴트가 손쉽게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고객들에게 보험상품 관련 문의부터 상담, 고객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보톡톡은 고객이 카카오톡 내 '교보생명 컨설턴트' 채널을 추가하고 연결에 동의하면 카카오톡으로 담당 컨설턴트와 자동으로 연결한다.

KB라이프생명

KB내맘대로 Pick! 온라인 전용 건강보험

KB라이프생명이 새로운 건강보험을 선보인다.

◆온라인 전용 첫 건강보험 출시

KB라이프생명은 온라인 보험 상품 'KB내맘대로 Pick! e-건강보험 무배당(갱신행)'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신상품 가입 이벤트와 보장분석 체험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KB라이프생명의 온라인 채널에서 처음 선보이는 건강보험이다. '고객 맞춤형 디지털 보장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이 가입하는 고객은 최대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현대카드에 수요 뺏긴 카드사, 애플페이 진입 '눈치'

수요 가능 어렵고 수수료도 부담 커
장기적으로 모든 카드사 합류 할 듯

현대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의 애플페이가 합류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소문만 무성하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합류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애플페이는 지난해 국내에 상륙했다. 사용 첫날 오전에만 21만명이 등록하면서 흥행을 입증했지만 여전히 사용가능한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수수료를 소비자보다 부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카드사에 애플페이 서비스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접근 문턱을 낮췄지만 정작 카드사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후발주자로서 애플페이가 도입으로 쟁길 수 있는 이익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진출하면서 관련 수요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대카드 외 신규 카드사의 합류는 지지부진하다. /뉴시스

를 대거 확보했다는 것.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대카드에 가입한 개인 신용카드 신규회원은 20만3000명이다.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중 가장 많다. 이어 4~5월에도 각각 16만6000명, 14만5000명을 유치하면서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매달 신규회원 수가 감소세를 기록했고 6월에는 KB국민카드(13만2000명)와 삼성카드(12만6000)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고객의 수수료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운영하면서 애플 및 비자(Visa)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0.46%인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애플페이가 수수료로 발생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25%다. 가맹점 수수료 중 36.8%를 애플페이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것.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규 애플페이가 가입자의 수요를 가능하게 어렵고 자칫 수수료 부담만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카드업계에서는 합류 시기가 늦어질 뿐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 서비스에 합류할 것이라 의견이 지배적이다. MZ세대는 물론 '잘파세대'에서 아이폰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금의 10~

2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기 전 미리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7월 한국갤럽이 진행한 '2023 스마트폰 사용자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18~29세 '아이폰' 이용률은 65%다. 지난 2022년(52%)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신규 카드가사 유입되면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 보급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간 카드업계가 우려했던 결제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지난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영세·중소가맹점에 NFC·QR 단말기를 지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국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확산도 시간문제다"라며 "물론 소비자들 기대하는 만큼 가파른 속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국민은행, 外인 근로자 고객에 전통지갑 증정

KB국민은행은 외국인근로자 출국 만기보험 공항지급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한국전통지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은 공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해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는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및 일반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 환전 신청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외화 현찰로 보험금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로 외국인근로자는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시 한국전통지갑을 함께 증정받아 본국까지 보험금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

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까지 안전하게 보험금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무쏘·코란도 ‘국민 SUV’ 신화… 토레스 등 전동화 ‘제2 도약’

KG모빌리티 창립 70주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제작사 KG그룹에 인수… 재도약 발판 마련
곽재선 회장, 글로벌 시장개척 주력
‘O100’ 등 다양한 신차 출시 예고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전동화 모빌리티 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954년 설립된 ‘하동환자동차 제작소’에 뿌리를 두고 있는 KG모빌리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제작사다. KG모빌리티는 2022년 11월 KG그룹에 최종 인수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사명변경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든 경험을 ‘가장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에 투영시켰고 이는 새로운 ‘KG 신화’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KG모빌리티의 부활은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토레스를 출시하면서 이뤄졌다. 토레스 출시로 ‘SUV 명가’ 재건의 첫발을 내디뎠다. 2022년 7월 출시된 토레스는 기술적 탄탄함과 우수한 디자인, 가성비를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사전계약 첫날, 기존 액티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

언 모델 첫날 계약 대수의 4배 수준인 1만2000대의 계약 대수를 돌파했다. 또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5만대를 넘어지며 무쏘, 코란도, 티볼리에 이어 전국민적 사랑을 받는 ‘SUV 명작’에 등극했다.

토레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주목받으며 KG모빌리티가 2023년 ‘10억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데 힘을 보탤다. KG모빌리티는 지난해 토레스의 국내외 활약과 더불어 전동 모빌리티 야심작 ‘토레스 EVX’ 출시, 글로벌 맞춤형 마케팅, 생산 효율화 등을 업고 역대 최대 매출(3조7800억원) 달성과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연간 판매량은 내수 6만3345대, 수출 5만3083대 등 총 11만6428대에 달했다. 이는 2014년 7만2011대 해외판매 실적을 거둔 이후 9년 만에 기록한 해외판매 최대 실적이다.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특히 이같은 성장은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의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도 한몫하고 있다. 곽 회장은 유럽시장 론칭 행사에 직접 참석, 현지 미디어 인터뷰 및 대리점 대표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열정적으로 수출 시장 개척에 앞장섰다.

유럽 22개국 대리점 사장 및 판매 책임자들과 직접 만나 새로운 KG 모빌리티 CI와 기업 비전은 물론 중장기 제품 개발 계획 그리고 수출 전략을 공유했다. 또 부문별 우수 대리점 활동 발표 등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제 KG모빌리티는 지난 2여년간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코리아 넘버원 e-모빌리티 브랜드’라는 새로운 비전

을 선언하며 차별화된 통합 모빌리티 기업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곽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사명변경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소프트웨어 중심차(SDV),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모빌리티 기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KG모빌리티는 내수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차를 내놓는다. KG모빌리티는 올해 상반기 토레스를 기반으로 한 ‘쿠페형 SUV’ 및 코란도 EV 택시를 출시하는 한편 픽업트럭 시장 활황에 맞춰 전동 플랫폼 기반의 픽업트럭 ‘O100’ 등 다양한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특장법인 KG S&C와 전기버스 등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겨냥해 인수한 KGM커머셜, 자사 차량 고객을 케어하기 위한 인증중고차 등을 통해 사업 다각화도 모색하고 있다.

기술적 성장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KG모빌리티는 비야디(BYD), 오토노머스 등과 협력해 운전자 편의와 배터리 안전성을 제공하는 한편 자율주행 모델의 확장도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행보도 남다르다. 사우디아라비아 SNAM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규 시장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종뿐 아니라 토레스 EVX를 생산할 수 있게 됐고, 2026년까지 해외 20만대 판매 목표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KG 모빌리티 곽재선 회장은 지난 2022년 취임사를 통해 “쌍용차를 지속 가능한 회사로 만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전 임직원이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리튬가격 반등… K-양극재, 수익성 ‘청신호’

3개월만에 kg당 100위안대 상승
업계, 안도… ‘실적 개선 가능성’

양극재의 핵심소재인 리튬 가격이 3개월 만에 kg당 100위안대로 상승해 국내 양극재 업계의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기차 수요 회복 여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도 존재하기에 업계는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18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kg당 105.5위안(한화 1만9540원)으로 집계됐다. 리튬이 100위안대에 들어선 것은 올해 들어 이달이 처음이다. 리튬 가격은 지난 2023년 12월 100.5위안(한화 1만8614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며 약 3개월간 kg당 80~90위안대(한화 1만4817원~1만6669원)에 머물렀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좌우하는데,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리튬이다. 양극재에서 리튬의 비중이 높을수록 배터리의 용량은 늘어난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글로벌 탄산리튬 시장은 지난 2023에 88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2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니켈 가격도 소폭 올랐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가 집계한 니켈 가격은 지난 1월 톤당 1만5700달러(한화 2095만원) 선을 기록했으나 지난 15일 기준 1만8000달러(한화 2402만원)선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니켈 또한 양극재의 핵심소재로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를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포항공장 조감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리튬은 지난 2020년~2022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소비 증가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지난 2023년부터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리튬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선 데는 글로벌 광산업체들의 공급 과잉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계 최대 리튬 기업 앨버말은 직원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호주의 코어리튬 기업도 피닉스 광산의 채굴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카디올리튬 역시 리튬 원광 생산량을 줄였다.

양극재 업체들은 원료 매입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의 가격 차이로 인해 수익 변동성이 높다. 통상 3~6개월 전 리튬을 비롯한 원자재를 매입하고 약 2개월의 재고를 확보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리튬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화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업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실제로 양극재 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 광물 가격 급락과 전기차 수요 둔화

본격화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4분기 각각 737억원, 11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엘앤에프 또한 2804억원의 적자를 냈다.

양극재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업계에 우호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재료 투입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리튬 가격이 상승할 때 미리 저렴하게 구매한 광물로 높은 판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레깅 효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다만 광물 가격이 지난해 평균 수준에는 못미쳐 여전히 불안한 기색도 감돌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어 리튬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리튬 가격이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라며 “1분기 실적 회복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2분기부터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항공, 하계 시즌 국제선 공급 확대

코로나 이전 수준 여객 정상화 계획

대한항공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국제선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해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시즌(3월31일~10월26일까지)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대폭 재개한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자사의 2024년 하계 시즌 국제선 여객 공급은 유호 좌석 킬로미터 기준 코로나19 이전의 96%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속적으로 여객 노선 공급을 늘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해 완전 정상화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하계 스케줄 시작에 맞춰 동남아·중국·유럽 4개 도시를 재

운항한다. 4월 24일부터 주 4회 인천~정저우 노선의 운항을 시작한다. 4월 23일부터는 인천~장자제 노선을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중국간 여행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노선에 추가 운항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운항 중인 노선의 편수도 늘린다. 인천~부다페스트(헝가리) 노선은 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인천~방콕 노선은 매일 3회에서 4회로, 인천~마닐라(필리핀) 노선은 매일 2회에서 3회로 증편한다. 인천~발리(인도네시아) 노선은 지난 1월부터 주 9회에서 11회로 확대 운항하고 있다. 인천~댈러스(미국) 노선은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증편한다. /양성운 기자

현대위아, 에코바디스 ESG평가 ‘골드’ 등급

지속가능경영 성과 인정받아

현대위아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대위아는 에코바디스의 ESG 경영 평가에서 ‘골드(Gold)’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175개국, 10만여개 기업의 환경, 노동·인권, 윤리, 조달 성과를 평가하는 글로벌 ESG 기관이다.

현대위아가 획득한 골드 등급은 상위

5% 이내 기업에만 부여된다.

현대위아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RE100’에 가입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 친화기업에 선정된 것도 노동·인권 분야의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다이슨 신제품, 한국서 첫 공개... “서울, 뷰티분야 혁신적 도시”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 출시
제임스 다이슨, 韓 찾아 직접 시연
K-뷰티시장 중요성 갈수록 커진 영향

영국전자기업다이슨(Dyson)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이 다이슨의 신제품 첫 공개처를 한국으로 정하고 직접 시연에 나섰다.

다이슨이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xyz서울에서 신제품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신제품 발표는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이 직접 나서 시연했다.

제임스 다이슨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행사의 포문을 열고, 직접 백발의 머리에 드라이어 바람을 쐬며 열정적으로 신제품을 소개했다. 그는 “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면, 보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에는 ToF(Time of Flight)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제품과 모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모발에 가까워질수록 열을 줄여 두피와 모발의 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모터 성능도 일품이지만 신제품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는 ‘뉴럴 센서 네트워크’ 등 다양한 센서 기능이 눈에 띈다. 강력한 센서 기능은 두피를 보호하고 전력 낭비를 막으며 사용자의 스타일링을 돕는다.



다이슨의 창립자인 제임스 다이슨이 18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품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두피 보호 모드는 머리에서의 거리를 측정해 모발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열을 줄여 두피 손상을 최소화하며 과도한 열로 인한 모발 손상을 방지한다. 더불어 스타일링 노즐에는 사용자의 스타일링 설정을 학습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일시 정지 감지 기능은 사용자 움직임을 센서가 감지해 드라이어의 전원을 켜고 끌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바람과 소음을 감소시켰다가 활성화시킨다.

제임스 다이슨은 “다이슨의 혁신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된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집념이 세계적으로 정밀한 헤어 연구소들을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제임스 다이슨의 한국 방문은 지

난 2019년 연세대학교 강연을 위한 방문 후 5년 만으로, 직접 한국에서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해 설명한 바는 처음이다.

캐슬린 피어스 다이슨 뷰티 부문 총괄은 “서울은 뷰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라며 “이러한 이유로 오늘 이곳에서 저희의 최신 뷰티 기술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슨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나은 제품들이 빠르게 도입되는 것에 큰 영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는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와 전국 백화점 다이슨 매장 등에서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

전기차 화재 소방기술 공동개발
각종 소방기술 현장 적용 목표

현대자동차·기아가 정부 및 학계와 손잡고 전기차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1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현대차·기아, 소방청(소방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및 연구에 참여하는 5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개발 협약체결식에는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전략기획실 김동욱 부사장, 배터리개발센터 센터장 김창환 전무 등 현대차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남화영 소방청장,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 전병욱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개발 협약의 목표는 전기차 화재의 빠른 감지와 대응 능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원천 기술 개발 ▲현장 적용 기술 개발 ▲제도화 방안 연구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원천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대

학을 중심으로 전기차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거동 특성 연구(가천대, 중앙대, 소방연구원), 전기차 화재의 확산 예측 연구(한양대),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 시 제연 및 배연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서울과학기술대학)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

현장 적용 기술 개발 분야는 각종 소방기술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한다. 지하주차장 상방향 주수 시스템 개발, 충전구역 소화설비 적용 방안 개발, 화재영상의 패턴인식 기반의 화재 특성 감지(이상 소방연구원), 화재 신속 감지 기술(홍익대)을 비롯해 소방대원 VR 훈련콘텐츠 개발(소방연구원) 등 현실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

자동차공학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제도화 방안 연구 분야에서는 전기차 화재진압 기술동향 및 효율적인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속한 법제화로 안전을 높이는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양성운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방산 분야

우수 인재 대규모 채용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4년 상반기 대규모 공개채용에 나선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적극 확보해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공식 채용 포털인 ‘한화인’을 통해 4월 8일까지 연구개발(R&D), 제조·생산기술, 품질, 구매, 경영지원 등 직무 분야에서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문 인재 확보를 위한 2분기 경력직 채용도 4월 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채용을 통해 K9, 천무, 레드백 등 방산 수출 증대와 누리호, 차세대발사체 등 국가 우주사업 참여 등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항공엔진, 엔진보수정비(MRO), 전기추진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개 대학을 방문해 인사 담당자 및 현직자가 함께하는 채용설명회 및 직무상담회를 진행하고 별도 사이트를 개설해 채용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담대한 도전을 함께할 우수 인재를 확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르노코리아,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

3년간 부산공장에 1.5조 대규모 투자
전기차 등 생산 설비교체 비용 투입
2025년 하반기부터 ‘폴스타 4’ 생산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미래차 생산을 위해 향후 3년간 부산공장에 1조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르노코리아는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부산공장의 미래차 생산 설비 투자 계획을 골자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르노코리아는 향후 3년간 부산공장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을 위한 설비교체 비용으로 118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인력 200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산시는 르노코리아의 미래차 생산시설 설비 투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르노코리아스태판드블레즈 사장은 “르노코리아는 첨단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 중인 오로라 1 및 2 프로젝트에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오로라 1, 2 프로젝트 이후 차세대 전기차 모델의 개발·생산까지 확정되면 2027년까지 총 1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르노코리아는 이를 통한 경제효과로 직접 생산유발 효과 12조원, 간접 생산



박형준(왼쪽) 부산시장과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이 18일 부산시청에서 미래차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유발 효과 30조원, 간접 고용효과 9만명 등으로 분석했다.

르노코리아가 첫 번째 미래차 프로젝트로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인 개발코드명 오로라 1은 하이브리드 중형 SUV로 르노코리아 기존 차량의 후속이 아닌 새로운 모델로 출시된다.

이와 함께 르노코리아는 르노그룹의 ‘르노 브랜드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 전략에 따라 유럽 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다섯 곳의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선정되어 르노그룹의 하이엔드 중형 및 준대형 자동차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부산공장에서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 4’도 생산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KT, AI 코딩·로봇 교육사업 확대

로보라이즌과 플랫폼 개발 등 협력

KT가 인공지능(AI) 코딩과 교육로봇을 결합한 미래 융합형 교육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KT는 로봇교육 전문 기업 로보라이즌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양사간 제휴는 ▲AI·코딩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 개발 및 교구제작 협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신설 ▲KT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능력시험인 AICE를 연계한 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협력이 골자다.

KT와 로보라이즌 양사는 앞으로 KT의 코딩 교육 플랫폼인 AI 코디니와 로보라이즌의 핑퐁로봇을 활용한 ‘차세대 융합형 미래교육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KT가 제공하는 AI 코디니는 AI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과 하드웨어 제어에 특화된 교육용 블록코딩 프로그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아우디, 중형 세단 ‘A5 카브리올레’ 출시

태양광 충전 무선 하이패스 장착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의 2024년식 모델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우디 A5’는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 우아한 실내 분위기, 혁신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아우디의 중형 세단이다. 특히 아우디 카브리올레 모델은 탁월한 기술력으로 소프트 탑을 오픈하고 주행시에도 쿠페 모델 특유의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번에 출시하는 2024년식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은 이전 ‘아우디 A5 카브리올레’의 연식 변경 모델로 ‘아우디 A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5 카브리올레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은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7단 S트로닉 변속기를 탑재해 최대 265마력, 최대 토크 37.7kg.m의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양성운 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주최: metro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은행주, 이슈에도 과열 조짐... 주가 조정으로 '숨고르기'

KRX은행지수, 이달 들어 8% 올라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
예상보다 상회 강도에도 주가 급등
올해 실적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며 급등세를 보였던 은행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전일 대비 1800원(2.36%) 내린 7만 44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우리금융지주(-2.10%), 신한지주(-1.31%), 하나금융지주(-0.16%) 등도 모두 하락 마감했다.

앞서 지난주 은행주들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구제에 투입할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 우려에도 강세를 기록했다.

특히 KRX은행지수는 이달 들어 8% 가량 올랐다. 개별종목으로도 KB금융



4대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본사 전경. /각사

과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4일 각각 7만 8600원, 6만 4600원까지 주가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신한지주도 오버행(잠재적매도물량) 이슈 해소로 같은 날 6년 만에 주가가 5만원대로 올랐으며, 우리금융지주도 지난 15일 장중 1만 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은행주의 시가총액 순위도 줄줄이 상승했다. KB금융은 지난 15일 증가 기

준으로 시가총액 30조 747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 17위에서 10위로 올라섰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28위에서 이달 21위(18조 1553억원)로 상승했으며, 신한지주(25조 4329억원)도 17위에서 15위로 순위가 올랐다.

업계에선 은행주가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조 발표된 감독당국의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

준안이 예상을 상회하는 강한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급등했다"며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이 전주에도 은행주를 각각 1500억원 이상씩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ELS 배상 이슈 등 강한 조정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연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 다소 과열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의 올해 실적에 ELS 자율배상

에 따른 손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도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규모는 KB금융 약 2조 3000억원, 신한지주 9000억원, 하나금융 7000억원 등으로 예상된다. 최종 배상비율이 30~40%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KB금융은 7000억~9000억원, 하나금융은 2000억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연구원은 "은행 평균 주가순자산 비율(PBR)이 0.40배 내외에 불과해 중장기 매력은 여전히 높지만 ELS 배상, 환율 상승 등 자본비율 하락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비율 추가 개선 없이는 큰 폭의 주주환원율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기업 밸류업'에 몰렸던 예탁금, 8일 만에 4兆 증발

신용융자잔고, 코스피·코스닥 최고치
MMF 설정액, 일주일간 2700억 줄어
"예탁금 감소, 증시 상승세 끝난 거 아냐"

국내 증시의 대기자금이 8거래일 사이 4조원 이상 증발하면서 조정국면 진입 경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증시 변동성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 잔고는 53조 4824억원으로 지난 4일 57조 8852억원에 비해 약 4조 4000만원이 줄어들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훈풍으로 몰렸던 투자자 예탁금이 약 8거래일만에 증발한 모습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

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자금으로, 증시 진입을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본다.

반면, 신용융자잔고는 증가세를 타고 있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신용거래용자잔고가 늘수록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초(1월 2일 기준) 17조 5370억원이었던 신용거래용자잔고는 지난 14일 기준 19조 253억원까지 증가했다. 현재 신용융자 잔액은 코스피는 10조 1713억원, 코스닥은 8조 8539억원으로 모두 연중 최고치다. 다만 동일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 9816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5일 기준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도 최근 일주일간 2700억원이 줄어들었다. MMF는 만기가 짧은 국고채나 기업 어음(CP) 등 단기물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으면서도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주목되는 점은 동일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5700억원 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3000억원 증가하면서 명암이 갈렸다.

다만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투자자예탁금 자체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15일 겪었던 주가 조정도 기술적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예탁금이 증시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증시 상승세가 끝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시 상승 시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나는 순서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꾸준히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 추세도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18일에는 코스피지수가 전장보다 0.79% 오른 2687.90에 마감하면서 상승세를 회복했다.

반면, 김경훈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의 경기확장 모습은 실제 펀더멘털의 개선이라기 보다 '기저'에 의한 기술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올해 시간이 경과돼 갈수록 국내 경기사

이들의 재차 둔화 전환 시각의 지속이 유지된다"며 "선행경기지표 쪽에서의 반락 시점을 올 상반기 말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올해의 관건은 후행경기지표의 실질적인 추가 하락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증시 대기성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7만 3797.97달러(약 9820만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이에 황 연구원은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위험자산에 속하고, 비트코인 시장 상승세가 뚜렷한 시기인 만큼 증시 대기성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면서도 "투자자의 교집합은 존재하겠지만 각 시장에만 존재하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프로젝트 펄스' 출범... 토큰증권 활력

신한투자·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 3사는 금융 인프라와 Web 3.0 서비스 간 시너지 모색을 위한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 펄스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협업 이니셔티브로, 토큰증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프로젝트 펄스는 첫 번째 활동으로 조각투자 및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대상으로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시범 사업을 운영해 손쉬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블록체인 전문 테크기업인 블록체인글로벌의 시큐체인(SecuC

hain) 기반 토큰증권 인프라와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의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3사는 비용 효율화뿐만 아니라, 조각투자사업자 및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한다.

블록체인글로벌은 조각투자 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인프라 및 플랫폼 전체 구축 경험과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젝트 펄스의 참여 기업은 별도 구축 비용 없이 월 구독료 형태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토큰증권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인프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위한 토큰증권 계좌관리시스

템을 구축하고, 발행부터 청산까지 토큰증권 업무 전반을 경험한 증권사다. 내재된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자산 상품 구조화부터 계좌 관리, 미러링(분산원장 및 증권사 등 계좌에 증권 소유 내역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규제 대응 지원 등 사업자 맞춤형 원스톱(One-stop)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펄스는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가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을 시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과 같이 프로젝트 펄스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가디언은 싱가포르투자청과 JP모건 등 다수의 금융 기업, 핀테크 기업들이 협력한 자산 토큰화, DeFi(탈중앙화 금융) 검증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펄스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블록체인글로벌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왼쪽부터) 정지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지난해 우수 투자은행 '미래에셋증권'

한국거래소 선정... 시상식 개최

한국거래소가 미래에셋证권을 2023년도 유가증권시장 우수 투자은행(IB)으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3시께 서울 사옥 홍보관에서 '2023년도 유가증권시장 우수 IB 선정 및 시상식'을 개최한 뒤

우수 IB로 미래에셋证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실적 등 시장 기여도와 기업공개(IPO)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더불어 선정 취지에 대해서는 IPO 우수 대표주관회사 선정·포상을 통해 IB의 신규 상장기업 발굴 유도 등을 위함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중소 상생금융지수, 4대 은행부터 도입... 전 기관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상생금융지수 토론회

중소기업계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수를 국민·하나·신한·우리를 중심으로 한 ‘4대 금융지주’부터 시작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위원회의 ‘상생금융 실적평가’(60%)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금융 종합평가’(40%)를 합해 발표하는 방식이 아이디어로 나왔다.

금융위가 은행별 관련 실적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동반위는 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정성평가)와 은행별 실적평가(정량평가)를 병행하는 구조다.

상생금융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미흡)의 5단계로 평가해 최우수(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동반성장지수와 사실상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식이다.

다만 중소기업계의 의지와 달리 상생금융지수를 실제 도입·적용하는 과정에서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의 조직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정책학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왼쪽 3번째부터)한정화 한양대 교수,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도성 중소기업정책학회 회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금융위원회 실적평가 60%에 동반위 평가 40% 합산방식 제시 도입과정 금융권 반발 거셀 듯

“본질은 은행-중소의 동반성장 美·日·獨 등은 ‘관계금융’ 정착 정착엔 중소기업 고질적 자금난 해소”

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상생금융의 본질은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방식 변화를 유도해 은행 독점이익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은행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사회공헌활동과 구분되는 중소기업 대상의

상생금융 방안을 지수화해 도입·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상생금융’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 범위를 포용금융, 성장금융, 혁신금융으로 구분해 이를 지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정착해 있다. 관계금융이란 은행이 돈을 빌리는 차주와 장기 거래관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한 정성적 정보를 대출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임 교수는 “국가마다 금융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 관계금융으로 진화해 왔다. 상생금융은 관계금융으로 발전해가는 지름

길”이라며 “우리나라도 현재의 단기적 거래금융이 장기적 관계금융으로 발전해야 진정한 상생금융이 정착되고 중소기업의 고질적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는 ‘은행경영실태 평가(CAMEL-IR 지수평가)’가 은행 건전성 훼손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은행과 중소기업의 상생금융을 통한 동반성장기여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교수는 “금융감독을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현행 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공공성 기준은 미흡하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 실적을 ‘CAMEL-IR 지수평가’에 반영해 은행의 경영건전성과 공공성의 역할 균형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 교수 역시 은행의 사회공헌을 상생금융과 별도로 평가하되 상생금융은 금융부담 경감(포용금융), 3년 이상의 시설자금 대출(성장금융), 기술가치 담보 대출(혁신금융) 등을 모두 아우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금융엔 ▲이자감면 ▲금리환급액 ▲수수료 감면 ▲보증부기업대출금 등, 성장금융엔 ▲신용대출 비중 ▲장기대출 비중 ▲이익공유형 대출 등이, 그리고 혁신금융엔 ▲기술신용대출 비중 ▲지적재산권(IP), 동산·채권담보, 일괄담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반영비율은 성장금융이 50%로 가장 많고, 포용금융 30%, 혁신금융 20%씩이다.

노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사회공헌, 성장금융 노력, 혁신금융 노력·실적, 중소기업 전용 금융상품 구비,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용 체계 구축 등은 ‘가점’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미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동반성장에 반하는 위반 행위 등은 ‘감점’을 각각 부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에 진행된 종합토론회에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 강영수 은행과장은 “왜(오늘)토론회에 관계자인 은행이 없을까 궁급하다. 당사자인 은행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또(상생금융지수)도입 아이디어에서 나온 인센티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지수를 만들어 놓으면 잘 작동하든, 그렇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칫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은행은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수가 은행의 건전성에 순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지수가 정부의(금융 관련)정책을 평가하는지, 상충되는지도 알 수 없다. 본질적 문제를 감안해 보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등 정치권에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글로벌 팁스 신설... 운영사 모집

3년간 최대 6억 해외진출 자금 지원 20곳 선정... 비수도권 투자사 가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획자, 초기 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모집한다. 올해엔 25개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팁스를 통해 해외 VC로부터 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6억원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엔 2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19일부터 4월16일까지 진행되는 팁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스 운영사 선정은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및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투자사에게 가점을 준다.

또 팁스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시드트랙) 운영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실적은 부족하지만 역량

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획자 및 지역 투자사의 팁스 운영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선정규모의 20%(약 5개사) 내외를 예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 운영사는 2년간 일반형 운영사에 주어지는 추천권의 50% 수준을 부여 받고, 이후 전환평가를 통해 일반형 운영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팁스 운영사는 현재 총 10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 기술개발(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지금까지 팁스를 통해 지원받은 2700여개 가량의 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 모집

단국대 등 전국 15개 대학과 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1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13일 2024년 디지털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특성화대학은 ▲수도권 5곳(단국대, 서정대, 유한대, 을지대, 청운대) ▲충청권 3곳(건양사이버대, 남서울대, 서원대) ▲영남권 4곳(경남대, 계명대, 대구

한의대, 동명대) ▲호남권 3곳(광주대, 국립목포대, 전주대)을 선정했다.

교육에선 온라인플랫폼업점 및 마케팅 방법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과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온라인 진출에 따른 매출 확대를 위한 특강, 멘토링 운영, 판매실습비 등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동반성장위, 동반성장 최고위과정 운영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과 맞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과 ‘제4기 동반성장 최고위과정’을 운영한다.

18일 동반위에 따르면 오는 6월21일까지 15주간 진행되는 최고위과정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한다.

동반성장 최고위과정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동반성장 및 ESG

패러다임 이해와 동반성장 자세를 함양한 전문 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4년 연속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번 제4기 동반성장 최고위과정은 동반성장 및 ESG의 심층적 이해를 돕는 전문 강의와 경영진 이미지 브랜딩, 코칭 대화 등 인문교양 강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 방문, 네트워크 워크숍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특허평가시스템 고도화... IP 우수기업 지원



기보, 올 6000억 IP평가보증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자동 특허평가시스템 ‘KPAS II’ 고도화를 통해 지적재산(IP)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의 IP 평가보증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18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의 특허평가시스템(KPAS)은 전문평가자의 평가데이터, 평가패턴 등을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및 딥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특허의 평가등급과 가치금액을 자동산출하는 스마트 특허평가시스템이다.

KPAS I(특허등급평가)과 KPAS II(특허가치평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KPAS는 실시간으로 신속한 평가가 가능해 연간 2만건 이상의 특허 평가 보고서가 생성되고 있다. 이는 대학 산학 협력단과 공공연구기관 등 28개 협약기관에서 활용도가 높다.

기보는 개별 전문가의 관점과 자동 평가결과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외부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속적으로 KPAS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박사급 인력 300여 명의 평가사례와 노하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매출 추정을 정교화하는 등 KPAS II의 가치산출 알고리즘을 고도화했으며, 평가자가 개별기업의 재무특성을 선택 반영할 수 있도록 AI 기반 자동산출시스템의 확립성을 보완했다. /김승호 기자

김밥·햄버거 등 외식품목, 33개월째 가격 상승

39개 주요품목 지난해비 5% ↑
통계청, 2월 외식물가 3.8% 올라
반면, 가공식품 물가 오름세 둔화
소금·당면 등 일부품목 크게 뛰어

지난달 김밥과 치킨, 햄버거 등 외식 물가를 좌우하는 39개 주요 품목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 넘게 오른 품목이 수도룩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외식 물가는 3.8%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3.1%)을 넘어섰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9.0%) 정점에 달한 후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33개월 연속으로 웃돌았다.

외식 물가를 구성하는 39개 품목의 가격도 전년동월에 비해 일제히 치솟았다. 특히 햄버거(8.2%)와 김밥(6.4%), 비빔밥(6.1%), 오리고기(6.0%), 떡볶이(5.7%), 치킨(5.4%), 맥주(5.2%) 등 27개 품목의 상승률은 전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물가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일부 품목은 크게 뛰었다. 설탕이 지난



지난 12일 서울지역의 한 음식점에 게시된 메뉴. /뉴시스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3%, 소금이 20.9% 상승했다. 또 당면(10.2%) 파스타면(13.5%), 초콜릿(13.9%), 사탕(10.3%), 아이스크림(10.9%), 잼(12.9%), 수프(14.9%), 차(12.4%)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가뭄과 엘니뇨 등 이상기후 탓에 설탕의 주요 산지 인도·태국 등지에서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공식품 물가는 2022년 12월

10.0%까지 치솟은 뒤 서서히 안정세를 찾은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5.1%에서 12월 4.2%, 올해 1월 3.2%에 이어 지난달에는 1.9%까지 둔화했다. 그럼에도, 가공식품을 구성하는 73개 세부 품목 중 47개 물가가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이 중 28개 품목은 전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산물의 경우, 농산물에 비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으나 오징어의 경우 동해 어획량 감소 여파로 상승률이 매일

10%를 넘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별로 가격 편차가 두드러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잇따라 식품 기업들을 만나 물가 안정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근 CJ제일제당과 농심 등 19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 차관은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 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담회를 열어 “물가는 민생의 핵심이고, 물가가 높을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민생정책의 체감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문제에 있어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물가지킴이’가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유치원
대대적 안전관리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정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전국 직영 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인건 등 어린이집 8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 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마쳤다.

올해는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 천안, 포항, 고양, 울산 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완료한 근로복지공단 직영 진해어린이집 전경. /근로복지공단

중앙행심위, ‘악성 행정심판’ 1만건... 청구인 형사 고소

특정인에 지속적 비난·욕설 담아
사건처리 우편료만 7200만원 달해
“손해배상 소송제기 방안 검토 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 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

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 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

호하기 위해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맞춤형 농지지원 등 청년농업인 확대

농어촌공사, 안정적 영농 정착 도와
선임대-후매도사업·스마트팜 계획

한국농어촌공사가 18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농업의 미래 성장 핵심 키워드를 ‘청년’으로 두고 기존의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82억 원→171억 원)을 비롯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54억 원→300억 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45억 원→60억 원) 등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구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 활용도 낮은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농업인이 시설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도와 배수

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 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스마트팜이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이 함께하는 ‘청년 농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그간 청년세대의 농업유입 확대와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농지매매·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 발굴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청년 농업인 6678명의 혜택을 지원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피아노 업계 1위 영창, 공정위 과징금 1.6억

대리점에 할인경쟁 말라 강요

디지털피아노 업계 1위 HDC영창이 판매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하 판매를 막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8일 HDC영창이 디지털 피아노 판매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2019년 5월~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

도 포함됐다. 영창은 이후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 판매가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창은 국내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2022년 상

/세종=한용수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 관련 연구 ‘맞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폐기물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는 19일 일본 이바라키현 쓰쿠바에 위치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열리며, 폐기물 분야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정보교류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행사 직후에는 양국의 폐기물 관련 연구 현황과 주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가 개최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공동 연구 주제 발굴 △전문가 상호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폐기물 처리 기술 공유 등의 폐기물 분야 연구 수행에 대한 협력 등이라고 우리 측은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또 오는 7월 영국 워릭대에서 개최되는 ‘유럽-한국과학기술학술회의’에 참가해 한국-프랑스 공동 발표를 진행하고 양국의 폐기물 재활용 분야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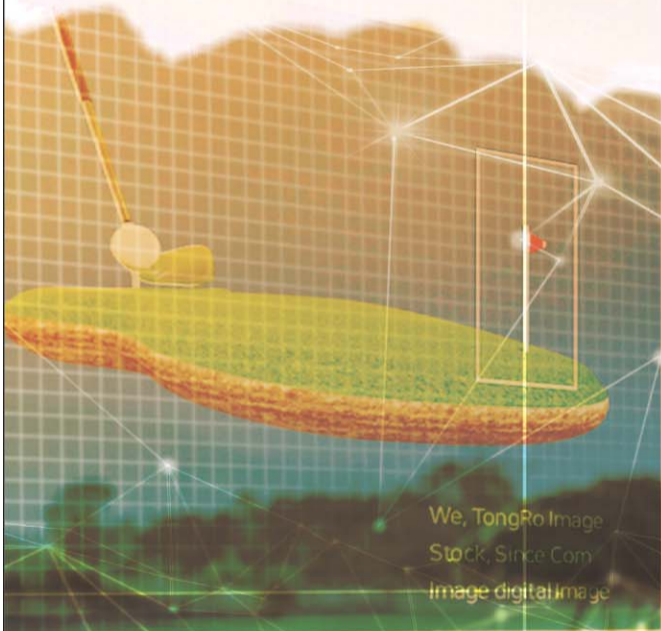
JUNO GOLF
PREMIUM GOLF STUDIO

경험해보세요 김준호 프로의 레슨 과학

Lorem 432.00
Lorem 122.00
Lorem 3.800



- 미국, 호주 등 골프 선진국의 레슨 노하우를 국내에서!
- 초고속 카메라 데이터분석의 프리미엄 레슨과학!



We, TongRo Image
Stock, Since Com
Image digital Image

김프로
Par 4 432m

김준호 프로 ■ 유튜브: 주노골프 ■ 인스타그램: juno_kim_44 ■ 주노프리미엄골프스튜디오 070-4243-9238

KPGA 프로 / 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주장 /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졸업(골프전공) / 미국 Brian Mogg 골프스쿨 3년 수료 / 호주 Ryde Paramatta Club 대표선수(4Y) / 미국 호주에서 다년간 골프 레슨

포항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그린바이오 확장 '박차'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신청 등 산·학·연·관 유기적 협업 도모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중점
반려동물 의약품 육성 등 추진

포항시가 바이오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수년간 국내 유일의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국내 최초로 도입된 극저온전자현미경,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 바이오 원천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센터(PBC) 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우수한 연구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와 함께 포항시에는 유망 바이오 기업의 벤처창업 플랫폼인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 글로벌 신약개발의 중심인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국내 최초 식물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R&D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풍부한 바이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IRC)' 개소식 기념촬영 사진.

포항시는 이러한 강점들을 내세워 지난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하며 명실상부한 바이오 미래산업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핵심 목표는 우수한 R&D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토대로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핵심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을 주 전략으로 삼고 있다.

포항시의 그린바이오 사업의 확장 역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높은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으로 농식품 및 관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으로 포항은 국내 최초 식물 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

에 있다.

지난해 2월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6대 유망분야 산업화 거점 중 동물용 의약품 거점으로 지정된 바 있는 포항시는 동물용의약품 거점지원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창업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총사업비 350억 원) 역시 상반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다양한 추진 동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것"이라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 국내외 바이오 주권을 확실히 선점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담양군

담양쌀, 올해도 佛 수출길 올라

전남 담양에서 생산된 '풍요로운 담양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랑스 수출길에 오르며 딸기에 이은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담양군은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프랑스 현지 아시아인 식료품 유통전문업체인 'ACE FOOD SAS'와 계약해 수출 전용 브랜드인 풍요로운 담양쌀 12톤을 지난 18일 선적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이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자리 잡은 요즘, 담양군은 지난해 미국, 네덜란드, 체코, 프랑스에 담양쌀 129톤을 수출한 경험을 토대로 유럽 전역으로 담양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남부 광역권 관광 활성화 사업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부산 거점 남부 광역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SIC (Seat In Coach) Tour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SIC Tour 사업은 부산에 체류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형 버스나 밴을 편하게 이용해 인근 지역(울산, 경남, 경북 등)의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SIC 투어 상품 5여종을 선정해 상품 홍보·판매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설사 간담회

울릉군은 지난 14일 군청에서 '2024년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은 2012년 12월 27일 국내 1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뒤 총 32명의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했고, 지난 6년간('18~'23) 무려 173386명의 탐방객이 해설사의 안내를 받았다.

현재는 23명의 해설사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 8월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실시한 인지도 부분 투표에서 51.6%의 득표로 이 부분 2위를 기록하는 성과까지 낳았다. /울릉(경북)=이상호 기자

밀양시

'밀양 독 페스티벌' 23일 개최

밀양시는 오는 23일 밀양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 원조 개통령 이용종 KCMC 문화원 원장을 초대해 '밀양 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용종 원장은 TV 동물농장, 슬기로운 반려생활, 아이러브펫 환골탈태, 체인지 등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시는 오는 23일 화창한 봄날을 맞아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하고자 이용종 원장을 초청한 밀양 독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완도군,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구축

해조류 기반 지역 전략산업 성과
생산시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조류가 대량 생산되는 서남해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조류 기반 바이오 소재·제품 개발 및 대량 생산 등 해조류 특화 거점지역'을 완도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완도군은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생태계 구조를 완성하고자 전남도와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조류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가 지난해 7월 준공·개소했다.

전남 도내에서 유일한 「해조류 소재 화장품 생산지원 시설」도 지난해 12월 구축했고, 해조류의 계절적 생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 원)를 확보했다.

군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사업비를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해조류에서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 기능 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원료 소재를 공급하는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은 설계를 완료해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신안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순항'

덴마크 CIP 기업서 100억 투자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해상 일원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덴마크 CIP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에서 100억원을 투자하여 특수조사 선박을 이용, 해양 지반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공사 시작까지 받아야 할 인허가 절차만 10개 부처, 29개에 이르는데, 해당 개발사는 지난해 3월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발전단지 설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반조사 착수 전 어업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등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 C) 및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완공되면 약 11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약 3만4600개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하동-보성군, 차 산업 발전 상생협력

자매결연 공동사업 교류회의 성료

대한민국 차(茶) 산업의 양대 산맥 하동군과 보성군이 차 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공동사업 교류회의'를 지난 15일 하동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의는 보성군수와 보성군 녹차 산업, 문화·예술, 체육 분야 관계자 25여 명이 하동을 찾은 가운데 각 지역의 단체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념품 및 특산물 증정, 공동 사업 협의 및 의견 교환, 기념 촬영, 악양면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차 산업 분야에서는 수출 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 협력, 방송 홍보 영상 공동 제작 등을 통한 새로



하동군과 보성군이 차 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공동사업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하동군

운 도약을 약속했다. 더불어 하동군립예술단과 보성군립국악단의 교류를 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체육 분야에서도 양군이 개최하는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부산 '신평·장림일반산단' 경쟁력 강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부산시는 신평·장림일반산단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정부가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지원하는 지역이다. 산업 입지 기능을 향상해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정되고 있다.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신평·장림일반산단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

고 본 지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신평·장림일반산단이 선정된 뒤 사하구, 지역 혁신기관과 협업하고 3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산업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산업·환경·사람이 공존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조 혁신, 스마트 제조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저탄소 그린, 산단 에너지 자립으로 친환경산단 조성 등을 위한 19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뻔하게 말고 Fun하게”... ‘체험형 매장’ 고객 발길 잡는다

식품·유통가, 특화매장 ‘속속’

식품·유통 업계가 특화매장과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젊은 세대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 매장과 다른 차별화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계광장에 신규 매장 ‘BBQ 청계광장점’을 오픈했다.

BBQ 청계광장점은 대규모 루프탑과 야외 테라스, 매장 최초 샌드위치와 와인 판매, 새로운 타입의 플래터 등 확장된 메뉴를 선보인다. 해당 매장은 BBQ 빌리지 타입으로 해외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테라스와 루프탑을 포함해 약 624.2㎡(190평, 3층), 총 236석 규모의 매장이다. 인근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계천의 시작점에 위치해 아름다운 조경과 시원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BBQ는 한때 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던 핵심상권에 입점한 만큼 브랜드 노출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BBQ는 국내 대표 놀이공원인



화장품 구매를 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CJ올리브영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내 위치한 푸드드롭(Food Drop) 레스토랑에 오픈한 BBQ 내부 전경. /제너시스BBQ

제너시스BBQ ‘BBQ 청계광장점’ 업계 첫 와인 판매, 테라스 등 조성

SPC배스킨라빈스 ‘워크샵’ 운영 ‘테스트베드 역할’... 신메뉴 선판매

CJ올리브영 ‘올리브영 명동타운’ 글로벌 특화... 하루 3000명 방문

롯데월드 서울과 부산에 각각 495.8㎡(약 150평)와 737.2㎡(약 223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했다. 특히 부산 롯데월드 어드벤처점은 푸드 드롭 레스토랑 형식으로 운영한다. 고객이 주문한 메뉴가 롤러코스터 모양 레일을 타고 빠르

게 내려와 픽업하는 방식으로, 먹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과 이색 경험을 제공한다. 독특한 방식으로 먹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매장에 적합한 것이다.

SPC 배스킨라빈스는 서울 강남구에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역량을 집결한 ‘워크샵 바이 배스킨라빈스(이하 워크샵)’를 운영한다. 와사비맛, 크렘드마롱, 딸기 모카 티라미수 등 기존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맛의 아이스크림은 물론, 미니 사이즈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판매한다.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스토리텔러도 상주한다. 소

비자들에게 취향에 맞는 아이스크림 플레이버를 추천하고, 배스킨라빈스 브랜드 스토리를 일대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이스크림 도슨트도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전문적이고 프라이빗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화매장은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신메뉴를 선판매해본 뒤 소비자 반응을 보고 전 지점으로 확대할지 판단할 수 있고, 방문객들이 SNS에 후기를 남기면 그것 자체로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통 채널의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이 대표적이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1월 명동에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글로벌 특화매장으로 새롭게 단장해 오픈했다. 매장 전면부에는 K-뷰티존을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마스크팩과 선크림 등을 배치했다. 올리브영은 이 공간에 매월 선별한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소개한다.

올리브영 명동타운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약 3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90%가 외국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진의 늪에 빠졌던 명동이 엔데믹 이후 되살아나며 글로벌 관광객 명소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화매장 오픈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지만, 치열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경쟁에서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체험을 앞세워 다양한 이색 공간을 조성해 차별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먹고, 구매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데이터 기반 압도적 고객경험 혁신 중요”

박정민 SK스토아 대표, 타운홀 미팅 ‘SK스토아 시즌2’ 방향성·청사진 제시

“데이터에 기반한 차별화된 고객경험 혁신을 만들어 갑시다.”

박정민 SK스토아 대표가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18일 SK스토아에 따르면 박정민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상암동 본사 사옥에서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을 갖고 ‘SK스토아 시즌2’ 방향성을 제시했다.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타운홀은 올해 사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등에 대해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정민 대표는 녹록하지 않은 시장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홈쇼핑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고, 송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자사의 역량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의 본질’을 강화하면서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재점검할



SK스토아 박정민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상암동 본사 사옥에서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을 갖고 ‘SK스토아 시즌2 청사진’을 제시했다. /SK스토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한정된 시간에 최적의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TV 홈쇼핑 비즈니스에서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소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시장을 읽고 분석을 고도화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신속

하게 제공하는 ‘압도적인 고객 경험 혁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SK스토아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SK 대표 커머스 사업자로, ICT 패밀리아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가 치열한 유통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다.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상품을 발굴하고 고객사들 또한 적극 지원한다면 강력한 선순환, 차별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박 대표는 “빠르고 강한 윈팀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아웃사이드 인’을 내재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웃사이드 인’이란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이다. ‘모든 길은 고객으로 통한다’라는 생각으로 고객에게 집중하여 치열한 유통 시장 경쟁 속에서 민첩하게 대응하자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최빛나 기자 vitna@

쿠팡이츠, 와우 회원에 ‘무제한 무료배달’

배달비 부담 해소... 26일부터 시작

고물가 시대에도 쿠팡와우 회원들은 배달비 0원으로 쿠팡이츠에서 부담 없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무제한 무료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쿠팡이츠는 배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쿠팡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음식배달 주문에 허들이 되었던 배달비를 아예 없애 고객들의 물가 인상 고통을 덜어주고 외식업주들은 추가비용 부담 없이 매출 증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는 주문 횟수, 주문 금액, 장거리 배달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별도의 쿠폰이나 할인과 중복 사용도 가능해 음식가격 할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와우 회원은 쿠팡이츠에서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비 0원에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최빛나 기자

현대백, 플레이브 등 아이돌 팝업 성과

엔터 테넨트 전략... 한달 매출 70억

현대백화점이 기존 백화점 MD의 틀을 깨고 엔터테인먼트 분야 콘텐츠를 앵커 테넨트로 적극 활용한 ‘엔터 테넨트’(엔터테인먼트+앵커 테넨트)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쇼핑 공간을 이색적인 경험의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의 방향성과 엔터 콘텐츠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더현대 서울에서 한 달간 순차적으로 진행한 버추얼 아이돌 세 팀의 팝업스토어를 다녀간 고객이 10만명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약 한 달간 진행한 팝업스토어 매출은 총 70억원이 넘었다. 통상 패션 팝업스토어 한 달 매출이 10억원가량인 점

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수준이다. 더현대 서울은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이세계 아이돌’, ‘스텔라 이브’, ‘플레이브’의 팝업스토어를 차례로 진행했다.

현대백화점이 버추얼 아이돌 세 팀을 한 데 모아 한 달 내내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파격적 시도를 한 건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여기에 그동안 상권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엔터 콘텐츠를 꾸준히 유지하며 쌓은 노하우와 역량도 ‘엔터 테넨트’ 전략 적용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지난 2022년 9월 더현대 서울에서 오픈한 ‘뉴진스’ 팝업스토어를 신호탄으로 다양한 점포에서 엔터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왔다.

/최빛나 기자

오아시스마켓, 봄 수산물 최대 56%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봄 맞이전’ 기획전

오아시스마켓은 오는 31일까지 봄제철 수산물을 최대 56% 할인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아시스마켓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봄 맞이전’ 기획전을 열고, 행사 기간 동안 주차별로 최대 1만원 할인 가능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기존 할인에 20% 할인 쿠폰을 더하면 최대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쿠폰 및 포인트와도 중복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제철을 맞아 더

맛있는 봄 제철 수산물을 보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부드럽고 담백한 통영 자연산 바지락(800g)을 1만 2000원에서 43% 할인한 6800원에, 3월에 가장 통통한 부산 새꼬막(800g)을 1만 2000원에서 47% 할인한 6320원에 판매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징어와 참조기도 할인 행사 품목으로 추가했다. 손질 통오징어 2미를 기존 8000원에서 45% 할인한 4400원에, 제주바당 굴비 10미를 기존 3만 9000원에서 47% 할인한 1만 9920원에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영양수액제 시장 커진다”... 제약사, 진출 러시

JW중외제약 ‘위너프에이플러스주’ 포도당·아미노산 등 함량 높여 HK이노엔, 오마플러스원주 시리즈 조성물 특허 등재 마쳐

국내 수액제 시장이 커지자 관련 시장을 둘러싼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이 국내 수액제 시장에서 초격차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HK이노엔과 자회사인 유한양행 등이 경쟁에 본격 참여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국내 수액제 선발업체답게 최근 중증환자의 영양공급에 최적화된 종합영양수액제(TPN) ‘위너프에이플러스주’를 출시했다.

‘위너프에이플러스주’는 기존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의 특징을 유지하고 아미노산 함량을 높인 제품이다. 포도당·아미노산·지질 혼합액 1리터(1) 기준 총 아미노산 함량이 기존 위너프 대비 25% 높다. 또 중증환자들의 고혈당증 발생률이 높은 것을 고려해 포도당 함량은 34% 낮춘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에게 별도 아미노산 제제 없이 단백질을



JW중외제약이 국산 수액 시장에서 기술력, 생산능력 등을 갖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JW중외제약

공급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위너프에이플러스주’가 처방 편의성과 경제성을 갖췄다고 설명한다.

JW중외제약은 제품 기술력뿐 아니라 생산능력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했다. 기존 TPN-1 라인의 경우 시간당 최대 700개로 연간 220만 개, TPN-2 라인은 시간당 최대 2000개로 연간 800만 개를 생산한다. 이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글로벌 수액 생산 회사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JW중외제약측의 설명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모든 용량의 종합영양수액제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생산라인 TPN-3 라인 증설을 완료하기도 했다. TPN-3 라인의 연간 생산량은 330만 개에 이른다. JW중외제약의 TPN

최대 생산량은 기존 1020만개 규모에서 1350만개로 32% 증가하게 됐다.

JW중외제약은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JW중외제약의 2023년 영업이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1000억원을 돌파했다.

HK이노엔은 신제품 종합영양수액제 ‘오마플러스원주’ 및 ‘오마플러스원페리주’를 출시하며 고부가가치의 종합영양수액제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HK이노엔의 오마플러스원주는 중심 정맥에, 오마플러스원페리주는 말초 또는 중심 정맥에 투여하는 용도다. 오마플러스원 시리즈는 오메가3 비율을 높이고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1대1로 맞춘 것이 특징이다.

HK이노엔은 오마플러스원 시리즈의 조성물 특허를 등재해 오는 2039년 1월까지 독점적 권리도 확보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액제 시장의 성장성이 커짐에 따라 종합영양수액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유한양행은 자회사 와이즈메디란 수액제 전문 기업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와이즈메디는 쓰리챔버 영양수액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 8일에는 오상헬스케어와 약 11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오상헬스케어는 앞서 지난 2023년 5월에도 유한양행과 맺은 협력의 일환으로 와이즈메디에 약 1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연이어 투자금을 조달하게 된 와이즈메디는 신공장 설비 보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와이즈메디는 2023년 12월 신공장을 완공했다. 2024년 우수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 승인, 2025년 허가 이전 완료, 2025년 말 정산 가동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와이즈메디는 향후 생산능력이 현재 대비 약 6.5배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애경산업

**‘선 에센스 팩트’ 출시
수분감 더해 피부 진정**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자외선 등으로 자극받은 피부에 수분감을 더해 피부 진정을 돕는 제품을 선보인다.

애경산업은 에이지투웨니스에서 ‘선 에센스 팩트 카밍 롱프로텍션(샤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카 펩타이드 성분과 소나무 피크노제놀 성분으로 이뤄진 ‘시카 파인 에센스’를 70% 함유한다. 또 에이지투웨니스가 개발한 ‘에센스 포켓 기술’을 통해 고체 제형 안에 수분 에센스를 담아 피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피부 냉각 성분이 피부에 밀착돼 제품 사용 후에도 시원함을 유지하는 ‘쿨링 트랩 시스템’도 적용됐다.

아울러 ‘선 에센스 팩트 카밍 롱프로텍션’은 징크옥사이드 성분을 포함한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하다.

제품 색상은 피부의 붉은기를 보정하는 ‘민트 베이스’와 자연스러운 톤업을 연출하는 ‘화이트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 화사한 피부 톤을 표현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셀트리온, ‘짐펜트라’ 美 시장 공략... 연매출 1조 기대

**2025년 처방률 10% 이상 달성 목표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 등극 계획
올 美서 열리는 학회 참여 경쟁력 ↑**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가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셀트리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맵 피하주사(SC) 제형인 ‘짐펜트라’를 미국 전역에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짐펜트라는 셀트리온이 지난 2023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신약으로 허가를 획득한 첫 제품이다. 중등도 내지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환자에게 사용한다. 권장 용량은 2주 간격으로 회당 120mg이다. 짐펜트라 도매 가격은 2회 투여분, 4주 기준 6181달러다. 셀트리온은 출시 2년 차인 오는 2025년 짐펜트라 처방률을 10% 이상 달성해 짐펜트라를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등극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며 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셀트리온은 복수의 중소형 처방약급 여관리업체가 짐펜트라를 자사 처방집에 등재하는 등 출시 초반부터 처방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와도 올해 2분기 내 상호의약품 등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셀트리온은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들에 참여해 현지 의료진들에게 짐펜트라 제품의 경쟁력을 직접 알릴 예정이다. 환자들 대상으로도 보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 제품 할인 및 공급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플릭시맵은 미국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제로 알려졌다. 의료 현장에서 20년 이상 사용돼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이 검증된 치료제로 평가된다.

/이청하 기자

CJ제일제당, 냉동치킨 시장 공략 본격화

‘고메 소바바치킨’ 양념으로 선봬

지난해 출시 8개월 만에 매출 500억원을 돌파하며 냉동치킨 시장 판도를 뒤흔든 CJ제일제당의 ‘고메 소바바치킨’이 이번엔 양념치킨 신제품으로 냉동치킨 시장 공략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고메 소바바치킨 양념’ 2종(순살·봉)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짠’의 조화로운 맛이 인상적이었던 소이허니 맛에 이어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글로벌 K-푸드의 대세로 사랑받는 양념치킨 맛 신제품을 선보이며 ‘국민 치킨’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메 소바바치킨 양념’ 역시 CJ제일제당의 차별화 기술인 ‘소스코팅 공법’을 적용해 소스를 얇고 균일하게 코팅하듯 입혔다. 냉동치킨 특유의 눅눅함을 없애고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이 유지

때, 전문점 수준의 식감과 풍미를 집에서 즐길 수 있다. 특히 매콤한 양념장에 꿀과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은 특제 양념소스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매콤달콤한 양념치킨 맛을 구현했다. 또한 인기 부위인 순살과 봉 등 2종으로 구성해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고메 소바바치킨 양념’ 2종 출시를 기념해 ‘CJ더마켓’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소비자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신제품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CJ ONE 포인트를 증정하며, 신제품 구매 고객 중 구매량을 선정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최근 고물가로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냉동치킨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소비 트렌드가 외식대체재로 진화하는 가운데, 냉동치킨 시장도 지난해 연간 1558억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는 추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라네즈 “바르고만 자도 피부 영양·보습”

‘바운시 앤 펌 슬리핑 마스크’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라네즈가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 많은 피부를 관리하는 제품을 선보인다.

라네즈는 ‘바운시 앤 펌 슬리핑 마스크’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슬리핑 마스크’는 바르고 자면 피부에 영양과 보습 효과를 전달하는 수면팩 제품이다.

라네즈가 이번에 선보이는 ‘바운시 앤 펌 슬리핑 마스크’는 피오니 및 콜라겐 성분과 펩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또 보습 광채 캡슐을 담아 밤사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관리해 준다. 피부에 끈적임 없이 스며드는 제형도 특징이다.

라네즈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브랜드 앰버서더 시드니 스위니와 함께 글로벌 캠페인도 진행한다. 해당 캠페



라네즈 브랜드 앰버서더 시드니 스위니가 ‘바운시 앤 펌 슬리핑 마스크’를 소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인은 어떤 표정에도 주름 걱정 없이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완성하는 ‘바운시 앤 펌 슬리핑 마스크’를 제안하는 내용이다. 관련 영상 및 다양한 콘텐츠는 라네즈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LG화학

**턱 지방개선 시장 진출
주사제 ‘벨라콜린’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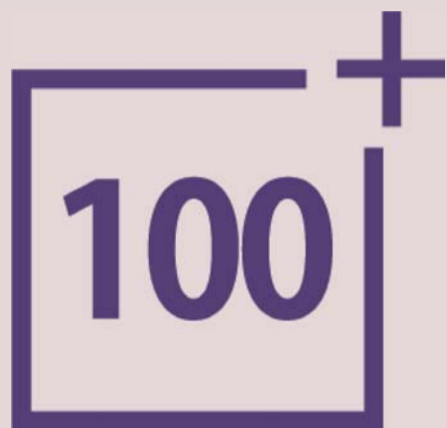
LG화학이 턱밑 지방 개선 의약품 시장에 진출한다. LG화학은 ‘벨라콜린(성분명: 데옥시콜산)’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벨라콜린’은 성인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을 개선하는 주사제다. 지방 세포막을 선택적으로 파괴해 지방량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또 콜라겐 합성을 통한 피부 탄력 유지 및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LG화학은 열처리 과정을 추가하는 등 차별화된 원액 제조 공정법을 통해 침전물 발생 가능성을 낮춘 점이 ‘벨라콜린’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상용화 과정에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LG화학은 앞서 국내 최초의 HA 필러 ‘이브아르’, 차별화된 물성의 HA 필러 ‘이브아르와이솔루션’, 주사용 스킨부스터 ‘비타란’, 정밀냉각 통증완화기기 ‘타겟쿨’ 등을 선보여 왔다. 이번 지방분해제 ‘벨라콜린’ 출시를 통해 에스테틱 시장 전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 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KCC글라스, 자립준비청년 사회안착 지원

KCC글라스가 서울 서초구와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KCC글라스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방배아트유스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024년 Dream홀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왼쪽 2번째부터) 전성수 서초구청장, 김명주 KCC글라스 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글라스



이재현 일주세화학원 이사장,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이재현 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이사장(가운데)은 세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광그룹



이랜드재단-미소, '굿럭굿잡' 캠페인 전개

이랜드재단이 이랜드월드에서 운영하는 여성 SPA 브랜드 '미소'와 함께 여성 자립준비청년들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굿럭굿잡'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랜드재단 이재욱 본부장, 티을 이지현 매니저, 티을 윤태준 대표, 이트아이빌 이소영 원장, 비타민엔젤스 홍석진 과장, 이랜드 주얼리 김종하 과장, 미소 공효정 팀장, 스킨스터디 선유희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랜드재단



유진기업, 임직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진그룹 모기업 유진기업이 안전한 근로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전사적 교육에 나섰다. 유진기업은 최근 서울 종로구 유진인재개발원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진기업의 공정 및 품질관리 부문 담당 임직원들은 이틀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 지식 및 실무능력 관련 교육을 받았다. /유진기업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자 모집

스타벅스 코리아는 아름다운재단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자를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정규직 직업을 갖지 않은 인원으로 공동생활 가정이나 쉼터 출신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25명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포스코퓨처엠, 미래세대 위한 '특별한 축구교실' 선사

포항스틸러스와 축구교실 기획 김준호 선수 등 일일코치 변신

포스코퓨처엠이 포항스틸러스와 함께 미래세대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평생 기억에 남을 특별한 축구교실'을 개최했다.

18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축구교실에서 포항스틸러스 선수들이 직접 일일 코치로 변신했다. 선수들은 미니게임 중인 어린이들에게 패스와 드리블, 볼트래킹 기술을 가르쳐주고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포항스틸러스 초청으로 포항스틸야드에 방문해 라커룸 미디어룸 등을 둘러봤다. 실제로 선수들이 이동하는 통로로 경기장에 입장해 미니게임을 펼치는 등 특별한 체험시간을 가졌다.

축구교실에 참여한 포항스틸러스



포항스틸러스 선수들이 17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직접 일일 코치로 나서 어린이들에게 드리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김준호 선수는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스틸러스와 포항 지역 아동센터 8곳 어린이 총 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첫 수

업을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매월 2회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축구를 통해 기초체력을 기르고 협동심을 함양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항스틸러스와 함께 축구교실을 기획했다.

포항스틸러스 소속 코치진은 축구 기본기 교육 뿐만 아니라 체력증

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포스코퓨처엠은 축구교실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 대관, 유니폼, 축구용품, 차량, 간식 등을 지원한다.

이태희 포스코퓨처엠 기업시민사무국장은 "어린이들이 축구교실을 통해 협동심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포스코퓨처엠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푸른꿈 환경학교'는 2013년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후 누적 1100여명의 어린이가 교육을 수료했다. 청소년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트랜시스,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iF 어워드' 본상

프로페셔널 콘셉트 부문 '2관왕'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인정받아

현대트랜시스가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꼽히는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 2개를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트랜시스는 프로페셔널 콘셉트 부문에서 도심형 에어 모빌리티(UAM) 캐빈 콘셉트,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시트도 2관왕을 달성하며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도심형 에어 모빌리티 캐빈 콘셉트는 현대트랜시스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최초로 미래 모빌리티 UAM의 공간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는 플립-오버시트(앞·뒤보기 전환이 가능한 시트), 슬립형 시트 디자인



현대트랜시스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한 '도심형 에어 모빌리티 캐빈 콘셉트'(위)와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시트'

인(노출형 프레임으로 가볍고 텐션 있는 소재 제안), 프라이버시 스크린 제안(빛이 투과되는 소재 활용), 러기지 공간 극대화(벤치형 쿠션

디자인으로 하단 적재공간 최적화) 등 제한된 UAM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면서 승객의 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았다.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시트는 '재생 모빌리티로의 전환(Shift to Regenerative Mobility)'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2023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에 이은 국제 디자인 대회 두번째 수상이다.

서승우현대트랜시스시트본부장 상무는 "미래 모빌리티 실내공간의 새로운 경험과 가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KGC인삼공사 '흥이장군 댄스대회' 개최

KGC인삼공사는 '흥이장군 어린이 댄스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흥이장군 댄스대회는 2015~2021년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흥이장군 CM송 혹은 K-팝 노래에 맞춰 나만의 에너지를 표현한 30초~1분 이내의 춤추는 영상을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2명 100만원, 최우수상 4명 50만원 등 총 12명에게 580만원 상당의 흥이장군 장학금을 전달하고, 정관장 매장 추천을 통해 접수한 참가자 중 10명에게는 흥이장군상과 흥이장군 제품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한국문화재단 ◇본부장급 △무형유산진흥본부장 조진영
- ◆국토교통부 ◇국장급 신규임용 △비상안전기획관 이경진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몽골대사 최진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본부장 △해양공공디지털연구본부장 전봉환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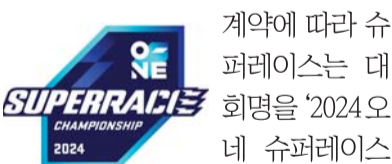
- ▲장기숙씨 별세, 김준(SK이노베이션 부회장)·현중(삼성전자상무)·정연씨모친상, 이소영(호서대 교수), 안지선(글렌우드홀딩스 상무) 시모상 = 1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9일 오전 11시, 장지 경기도 양주시 운경공원. 02-3410-3151
- ▲김충언씨 별세, 이종성(부국증권 기업금융본부장)씨 모친상 = 18일, 경남 진주시 제일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055-750-7100
- ▲하옥자(향년 74세)씨 별세, 김인(경향신문 노조위원장)·김인경씨 모친상, 서강원씨 장모상 = 17일 낮 12시30분, 서울직심자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9일 낮 12시. 02-2002-8444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

'오네' 브랜드 인지도 강화

CJ대한통운 통합 배송브랜드 '오네(O-NE)'가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 슈퍼레이스와 손잡고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최고 자동차 경주대회 슈퍼레이스와 2024년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에 따라 슈퍼레이스는 대회를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으로 바꾸고 8년만에 대회 엠블럼(사진)도 교체한다.

배송박스를 향상화한 오네 로고가 포함된 새로운 대회 엠블럼은 오네 브랜드의 리더십과 혁신의 이미

지를 담았으며, 레이싱 트랙을 향상화한 그래픽 라인을 통해 모터스포츠의 DNA를 표현했다.

CJ대한통운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레이싱머신과 모터스포츠의 역동성을 통해 글로벌 혁신기술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슈퍼레이스와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농어촌공,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과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나눌 봉사단체 2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 등 재능을 나누

는 직능·사회봉사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 대학교·대학교 봉사 동아리 등을 선발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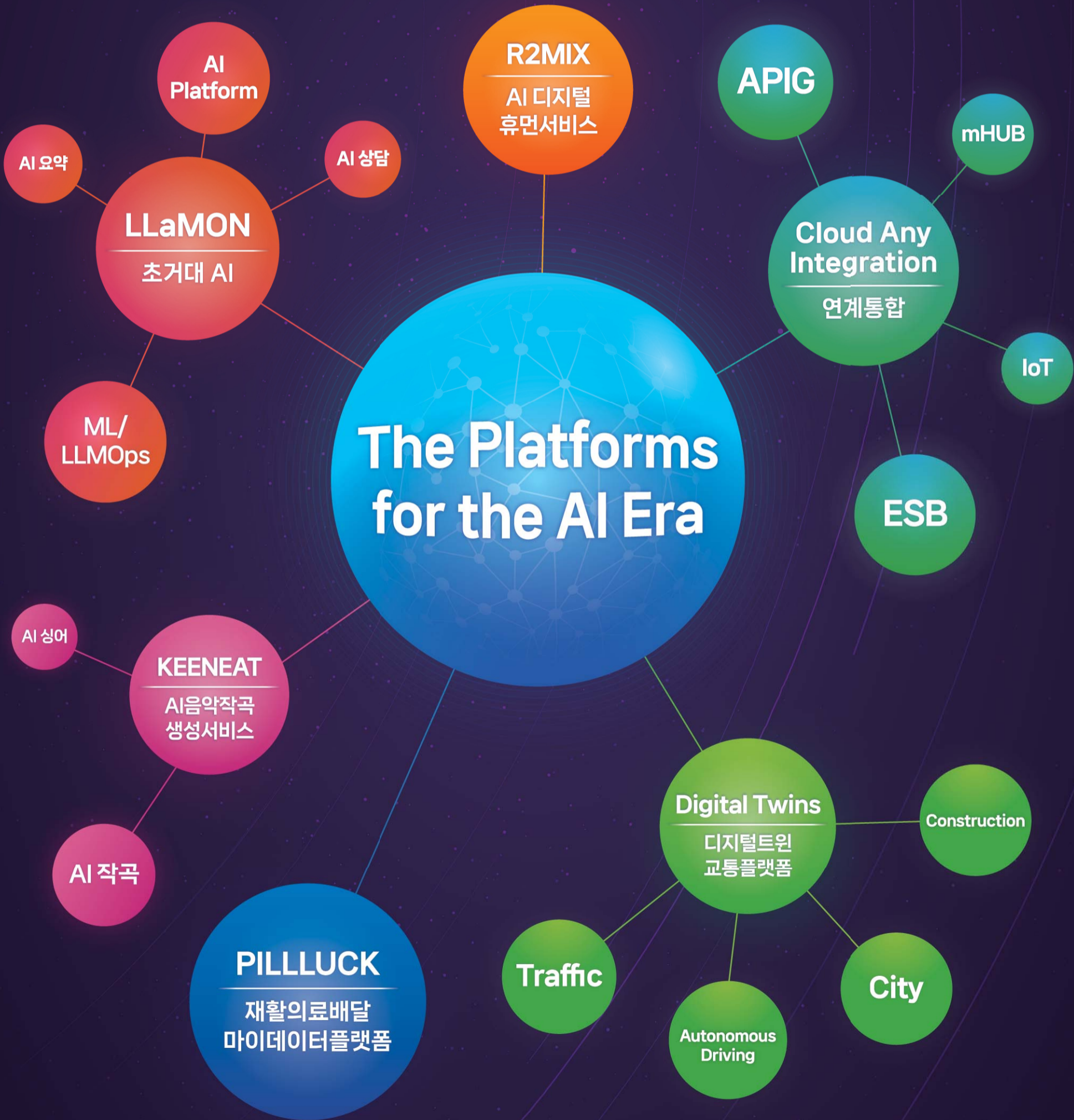
2011년부터 작년까지 1068개 봉사활동 단체에서 16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여 농촌지역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신하은 기자 godh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일본의 아파트와 맨션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로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여행이면 더 좋고 업무를 위한 출장이라도 왠지 비행기를 탄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는 비행시간도 짧아서 적당히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때쯤 도착하기 때문에 이코노믹 클래스 증후군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공항이든 마찬가지로 공항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어 공항 리무진 버스나 도심 철도를 이용해서 다시 목적지로 이동하게 된다. 일본의 공항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일본의 시골 마을들을 보고 있으면 한적한 평야와 적당한 촌락이 보여 우리의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기와지붕의 집들도 보여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이질감이 들기 시작한다. 외곽지역은 우리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도심으로 갈수록 무언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한참을 달려왔으니 분명 도심 한복판은 아니더라도 시골은 아닐 텐데 높은 건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건물이 2층 규모로 아담하게 지어져 있으며, 내 어릴 적 기억 속의 연립주택과 같은 모양의 건물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와 보니 빌딩 숲은 또 우리와 같은데 그곳을 조금만 벗어나니 정말 드물게 보이는 아파트 몇 채 외에는 낮은 구조의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3, 4층 건물은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도 도심은 땅값이 비쌀 텐데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일본의 지진 때문에 오래전부터 축적된 일본의 건축 양식 때문이다. 일본은 지리적 특징 때문에 지진이 매우 자주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도 예사롭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사용해서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건축 기법이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단단하고 튼튼한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집을 지으면 오히려 지진의 영향으로 붕괴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일본은 내진설계와 관련된 건축 기술이 발달했지만, 내진설계는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지으려 하니 여전히 목조 주택이 많이 있고 목조 주택은 구조상 3층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려워 2층 이하의 주택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목조 건축물은 단독 주택도 있지만 도심으로 갈수록 우리가 아는 연립주택 모양으로 지은 집을 부동산 회사가 관리하면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보기에는 연립주택인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아파트라고 부른다. 사실 아파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형태는 맨션이라고 한다. 따라서 맨션은 고층 건물에 가격이 비싸 아파트보다는 집값이나 월세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드물게 보이던 아파트를 일본인들은 맨션이라고 부르다니 일본과 우리는 같은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같은 것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본인과 대화할 때 아파트 이야기를 나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맨션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한참 동안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총선에 뒷전으로 밀린 망사용료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총선 표심을 노리고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등 각종 감세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망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 망사용료 갈등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생과 밀접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논의 제외되고 있는 것. 하지만 망사용료는 기업 성장을 좌우하는 중대 요소다.

망사용료는 넷플릭스, 트위치, 네이버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다. 이를 두고 ISP와 CP는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ISP는

CP가 데이터 트래픽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P는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을 내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망사용료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국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0여 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망 사용료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망사용료에 대한 논쟁은 재점화됐다. 트위치가 철수 이유로 한국의 비싼 망 사용료를 꼽았기 때문. 이를 두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트위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의 망

사용료는 아시아 대부분 국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트위치의 철수는 망사용료 문제가 아닌 경영실패로 봐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제공 업체의 임원인 최고법률책임자(CLO) 알리사 스타작 또한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트래픽 비용이 세계 다른 지역의 30배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트래픽 비용은 낮은 티어의 네트워크 정보(트래픽)를 높은 티어의 네트워크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처럼 망 사용료에 대한 논쟁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망 사용료는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해본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9일 (음 2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복권 사는 날. 48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60년생 가족 간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상책. 72년생 조직에서 선봉에 나서게 되지만 오래 근무하던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84년생 독산고목(禿山枯木)으로 지도자의 상.



37년생 병도 약도 내 닦았다. 49년생 독신이어도 이성에게 눈길은 조심. 61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없다. 73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85년생 남편에게 잘하면서 무시도 한다.



38년생 가족 간에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기니 서로가 슬프다. 50년생 배우자와 다툼이 예상된다. 62년생 용이 물을 만나니 뜻밖의 바를 달성. 74년생 상대 연인이 상견례를 하려고 할 것이다. 86년생 파부트러블이나 위장병 체크.



39년생 고향으로 가서 삶을 시작하려. 51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해야 한다. 63년생 시적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75년생 내일의 복된 날을 위해 오늘은 꾸준히 노력해야. 87년생 어려운 일도 수단이 능하여 해결.



40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다. 52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자. 64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말조심. 76년생 주변 애경사에 참석하듯 집안의 제사에도 참석해야. 88년생 이재능력(理財能力)이 향상된다.



41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가까운 곳을 살펴라. 53년생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따르려 하지 않으니. 65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이니 마음을 편하게. 77년생 시간은 금이니 활용을 잘해야 한다. 89년생 남편은 기대 이상.



42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54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66년생 길 떠나려는데 비가 온다. 78년생 지나간 연인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90년생 청풍명월과 같이 자연을 벗 삼고 싶어 농사 선택.



43년생 아랫사람과 협력해야 만사가 편하다. 55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해야 하는 날. 67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하라. 79년생 모난 돌이 정맛는 법이니 오늘을 참아야 한다. 91년생 부모님을 보니 세월이 덧없지만 희망은 있다.



44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56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68년생 열쇠 세 개를 얻는 날. 80년생 마음이 울적할수록 웃어야 복이 온다. 92년생 서둘러서 답장을 수리하여 운기를 바꾸자.



45년생 부동산은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7년생 힘들어도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69년생 바를 가는 데 실 따라가니 행운이 가득. 81년생 심한 다이어트보다는 덜먹어보라. 93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



46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하다. 58년생 과대포장은 상대에게 부담 주는 일이다. 70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니 협동. 82년생 구름이 물을 보니 용을 만나는 날. 94년생 투자에 성공하는 지름길을 찾을 수가 있다.



47년생 자손이 새 인연을 데려오니 기쁘다. 59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최선. 71년생 나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 같아서 두려움이 오는 것 같다. 83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리니 일을 마무리한다. 95년생 종교에 관심을 둔다.



김상회의 四季 관상과 운명

사주보다는 관상이요 관상보다는 심상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하는 생각이 표정에 나타나기도 하며 평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에너지가 되어 얼굴에 그 생각대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기도 하는 것이니 얼굴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관상이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의 됬됨이와 운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관상학으로까지 발전했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도 행동심리학이란 분야가 있다. 사람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일정 패턴으로 걸음걸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눈빛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기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상담을 위해 들어서는 사람의 표정이나 눈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지 점을 쳐보면 틀리지 않았다. 가끔 불륜 남녀가 함께 오기도 하는데, 필자는 불륜하지 않게 대하여도 처음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한다. 동업자끼리 와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숨기는 것이 있거나 할 때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딴 곳을 보며 이야기하거나 눈을 깜짝거리기도 한다. 말을 할 때 입술에 침을 바를 때는 거짓말을 감추고 싶은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습관이라고 관상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손과 발로 편짓을 하거나 다리를 떠는 것도 복나가게 하는 짓이라고 어른들이 야단을 치는 것도 뭔가 자신이 없고 불안할 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주눅이 들고 매사 자신이 없이 내면에 불안함이 있을 때도 시선이 바르지 못하다.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시선을 바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에 자꾸 자신을 주는 구절을 반복해보는 것도 좋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보살님의 명호를 작은 소리를 내어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9	3	1	
4			3	9	
			2		7
	7		2	6	
					8
2		8	5		1
6		7			
	5	8			6
9	2	4	1		

3	4	9		7	
		5	7		
2	6		3		
9					8
	5	9	2	6	
7					9
		1		5	4
	3	8			
3		6	7		2

8	2	1	9	7	9	2	8	6
9	6	7	8	8	2	9	1	2
9	8	2	6	1	2	8	7	9
6	1	2	7	9	8	9	8	2
7	2	9	1	2	8	6	9	8
8	8	9	9	2	6	7	2	1
2	7	8	2	9	9	1	6	8
2	9	6	8	8	1	2	9	7
1	9	8	2	6	7	8	2	9

2	8	2	9	9	7	6	8	1
9	1	6	8	2	8	2	7	9
7	9	8	6	1	2	8	2	9
6	2	9	1	7	9	8	2	1
2	8	9	7	8	6	9	1	7
8	7	1	8	9	2	9	2	6
9	6	8	7	8	1	2	9	2
8	9	7	2	9	1	6	8	
1	2	2	9	6	8	7	9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육부, '2024 COSS 사업' 추진계획 발표

융·복합 첨단인재 육성 2000억 투입

대학-지자체 간 협업 지원
신규사업 참여 연합체 공모
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

교육부가 올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 2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에 새로 참여할 연합체 5개를 새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하고 인적·물적 자원 공유·활용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며 기업과 협업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2021년부터 진행 중이다. 대학생은 누구나 소속 학과나 전공과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연합체 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육부 세종청사 /메트로신문DB

대학들이 공동 참여하는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난해 8개와 5개 연합체가 운영됐다.

교육부는 올해 '지자체참여형' 5개 연합체를 추가로 선정해 총 18개 연합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 지원비는 2010억원이다. 신규 연합체에는 개당 102억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새로 선정된 연합체엔 2년차 이후 단계평가를 통과하면 4년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

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 5개 분야로, 새 연합체 1개씩을 각각 선정한다.

신규 연합체는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최대 5개 대학이 연합체 1곳을 구성할 수 있다. 참여 대학은 소재지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40% 이상씩 포함시켜야 하며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구축 ▲첨단 산업분야 융·복합 교육과정 ▲기업 협업 및 학사·교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년간의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24일 오후 3시까지 신청을 받고, 오는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첨단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에스! 키즈존!'(강남구 한티근린공원). /서울시

서울시, 'iF 디자인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에스! 키즈존!' 등 3개 본상

서울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2024 iF 디자인어워드'에서 총 3개 본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공공문화예술공간인 '홍제유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4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에 본상을 받은 시설은 서비스 디자인 부문 '에스! 키즈존!'과 퍼블릭 아트 부문 '도킹 서울'이다. 이에 앞서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도 도시디자인 관련 커뮤니케이션·시티브랜드 본상을 받아 올해 3관왕을 달성했다.

강남구 한티근린공원에 마련된 에스! 키즈존!은 5개 나라를 탐험하는 미션 수행 콘셉트로, 깃발 올리기·정글 외출타기·황금 열쇠 찾기 등 콘텐츠와 연계한 신체 활동 유도 디자인이 적용됐다.

도킹 서울은 20년간 폐쇄된 서울역 주차 램프를 예술 전시공간으로 바꾼 시설이다. 회오리 형상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로 만나지 않았던 2개의 주차 램프를 연결해 우주와 서울, 가상과 현실, 과학과 예술을 잇는 7개 작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서울경제진흥원, 도시 경제 활성화 팔 걷어

30억 규모 글로벌커머스 운영
중소 IP '확보·보호' 지원 총력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서울시민·스타트업·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기업 매출·수출 증대 지원,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경제진흥원은 기업 애로사항과 규제 해소 등의 문제를 전문 지원하는 서울 기업지원센터와 글로벌커머스 사업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IP) 확보·보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SBA는 기업애로 전문상담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특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서포트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의 조기 사업화를 돕고 창조산업 현장간담회와 성과공유회를 통해 서울형 규제혁신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SBA는 설명했다.

SBA는 이달 중 규제혁신 샌드박스 지원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내달 규제특례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연중 상시 가동한다.

이와 함께 SBA는 29억6800만원을 투입해 글로벌커머스 사업을 운영한다. SBA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우수 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리딩 커머스 협력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등 이커머스 플랫폼과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플랫폼 특성에 최적화된 프로모션을 기획,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SBA는 올 3월 커머스 플랫폼 프로모션 참가사를 모집하고, 다음달에는 쇼플루언서 후속 지원과 서울어워드 제품 선정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지원에도 힘쓴다. 서울 중소기업·시민·소상공인의 핵심기술을 권리화하고 IP 애로 해결을 도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먼저 SBA는 IP 신규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조사·분석과 해외 출원, 기술가치평가 등 지식재산 바꾸어 지원에 나선다. 지식재산 분쟁 예방과 침해 대응 등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상담·조사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 IP 관련 애로 사항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김현정 기자 hjk1@

데이터허브, 드론밸리 등 구축

고양시는 4차 산업 스마트기술을 행정분야에 도입하여 교통, 도시계획, 시민안전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5월 국토부 주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402억원 규모의 고양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허브 구축, 스마트 행정서비스, 가상현실(디지털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교통, 드론밸리, 스마트폴, 미디어 월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20일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교통, 안전, 도시행



고양시청사. /뉴시스

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 각종 분야의 데이터를 한자리에 모으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안별로 분산되어있는 데이터를 수집·표준화·가공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시민, 기관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확장...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 이용

서울시 "수도권 시민 실질적 혜택 제공"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사진)를 김포골드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후동행카드가 서울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장된



첫 사례로 별도 가격 인상은 없다. 따릉이 이용자는 6만5000원권을, 이외 사용자는 6만2000원권을 구매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장을 발

판 삼아 앞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다른 지자체에서의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와 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7 | 해질 / 18:43

3월 19일 (화)
음력 : 2월 10일

수도권 날씨
3 ~ 11°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0/11
- 동두천 1/11
- 파주 1/10
- 가평 -1/10
- 서울 3/11
- 양평 1/12
- 인천 4/9
- 수원 4/10
- 용인 4/10
- 평택 2/11

백령도 4/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72세 푸틴, 득표율 87%로 5선 확정... 84세까지 집권하나 /사진 뉴시스
▲ 이 '라파 지상전' 승인에 서방 우려... "민간인 안전 보장해야"

▲ 금지조치에도 中 가상화폐 투자자, 지난해 1조5300억원 수익
▲ '틱톡 금지된다면' '표현의 자유' 소송 이어질 것"



▲ 미국무부 "北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한미일 방위 공약 철통"
▲ 일본은행, 오늘부터 금융정책결정의...마이너스 금리 해제 검토 /사진 뉴시스



식품·유통가
특화매장으로
고객 발걸 잡는다
L1



Life

국내 제약사
영양수액제
시장경쟁 확대
L2



멸종위기종 돕고, 잘피 심어 정화... 생태계 지키는 '환경영웅'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효성

"ESG 경영은 효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정체성" 지난 2021년 효성이 이사회를 열고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경영 트렌드 중 하나다. 효성은 이를 통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효성그룹은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VOC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백년기업'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효성은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그룹 내 지주사를 추가로 신설하고 형제간 분할 경영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SG 활동도 2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멸종위기종 보호부터 해양 보호까지

효성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겨울철새 먹이 지원과 해변에서 잘피 보전 및 해안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효성 임직원들은 지난 2월 세계습지의 날을 기념해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의 일환으로 경남 김해시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일원에서 아사 위기에서 구조·치료한 독수리 3마리를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행사를 진행했다. 효성은 겨울철새 보호 및 보존 지원을 지속해 나가면서 추가방사 독수리들에게 각각 효성1호, 효성2호, 효성3호 이름을 붙여주고 관리할 계획이다.

독수리는 자연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먹어치워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개체수 급감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생물다양성이 보존되는 환경은 기업의 토대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라며 "먹이지원 활동을 비롯해 멸종위기 생물들의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효성은 지난 2022년부터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알려진 잘피의 보전 활동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주사를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3개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거제시와 함께 잘피숲 보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1월에 경남 거제시 다포리에 위치한 다포항 해변에서 잘피 채취, 이식 및 해안 정화 활동을 펼쳤다.



멸종위기 지정 겨울철새 먹이 지원 독수리 구조 등 생물다양성 보존활동 탄소저감 위해 해양식물 잘피 식재도

협력사 대상 ESG 전문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 지원

임직원들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독려 리사이클 체험으로 재활용 인식 높여

◆ 협력사 ESG 역량 강화로 '친환경 섬유 트렌드' 이끌어

효성티앤씨는 협력사들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과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EU 등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공급망 실사법' 등으로 협력사의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협력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 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정기적 실사를 의무화하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협력업체의 근로자 인권·환경오염 등 문제 발견 시 공시 및 시정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효성티앤씨는 ESG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지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1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ESG 교육, ESG 진단 및 가이드, 개선 컨설팅을 제공했다. 효성티앤씨는 협력사의 ESG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ESG 규제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 회장은 "ESG는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기업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라며 "효성을 비롯한 협력사들의 ESG 경영 강화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섬유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무실에서도 친환경 실천

효성은 기후 변화에도 긴밀히 대응하기



1 효성 임직원들이 지난 2월 세계습지의 날을 기념해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 일원에서 아사 위기에서 구조 및 치료한 독수리 3마리를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

2 효성은 지난 2023년 2월 공덕동 효성 본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3 효성티앤씨는 다 쓴 페트병을 모으면 리사이클 섬유로 만든 가방으로 돌려주는 '페트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직원들이 페트병 수거함 앞에서 리젠 적용 가방과 재활용할 페트병을 들고 있는 모습. /효성

위해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환경문제를 향한 젊은 인재들의 관심을 높이고 소통하기 위해 조 회장의 '그린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독려했다.

효성티앤씨 마포·반포 본사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사무실 개인컵 사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탕비실에 비치된 종이컵을 비롯한 일회용품은 없애고, 임직원들에게 개인용 텀블러 구입비를 지급했다.

아울러 '페트병 수거'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임직원들이 다 쓴 페트병을 모으면 효성티앤씨의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섬유 '리젠 폴리에스터'로 만든 가방 등으로 돌려주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업사이클링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LA다저스 "계란투척 처벌불원, 출국 때는 이런 일 없길"
▲'홀런 폭발' 샌디에이고 김하성, LG 트윈스와 연습 경기서 대활약 /사진 뉴시스

▲'양의지 홀런 2방' 두산, 시범경기 8연승...롯데는 4연패
▲맨유, 연장 접전 끝에 라이벌 리버풀 꺾고 FA컵 4강 진출



▲김시우,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6위...세플러 2연패
▲조재호·김가영, 프로당구 월드챔피언십 우승 /사진 뉴시스